

월간 증 현

The Monthly Chung Hyeon

'81 6 월호

제 6 회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훈련
1980. 6.16. ~ 20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성도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 값으로든지, 훈련을 위해서든지, 혹은 의인이 당하는 핍박의 형태이든지간에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요 15:20)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무수히 많은 환난을 당하였기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을 치며 압제하나이다”(시 56:1)라고 기도하였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백하였다. (고후 1:8)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빌 1:29)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고난의 역사였던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정당화해서는 안된다. 만일 환난이 죄값으로 온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통회하며 기도해야 한다. 환난이 개인의 죄값으로 인한 것일 때에는 물론이거니와, 그것이 타인과 민족의 죄값에 기인한 것일 때에도 타인을 정죄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려 책임을 회피하는 원망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된다. 구약의 선지자들, 특히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의 죄값으로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때 민족과 함께 울며 회개했었다.

한편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이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사용하시려는 훈련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고난중에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영광스럽게 여겨야 한다.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

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벧전 4:12, 13, 16)고 말씀하셨다. 야고보 선생님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맺으로 성도들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다. (약 1:2)

또한 단련을 위한 환난을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행 14:22)는 바울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환난을 피하거나 체념하지 말고 담대하여 환난을 이기고(요 16:33),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기쁨과 용기를 가지는 승리의 개선가를 부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롬 8:35),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다른 아무 죄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롬 8:38-39)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기 때문이다. (롬 8:37).

성도가 환난이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누구에게든지 환난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할 때 역경을 혼자 안고 몸부림 칠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는 근본적 원인을 발견하여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감사할 일은 감사해야 할 것이다. 환난을 당했을 때 환경 앞에 무릎을 꿇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

(주간)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제9권 제6호 통권 89호

— 6월호 차례 —

월간 충현

권 두 언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성도.....	주 간 · 2
이달의말씀 하나님이 선민에게 하신 부탁.....	김장인 · 4

□ 특집 / 6·25를 생각하며 □

- 고난과 기독교.....김차생 · 6
- 공산치하에서 보낸 3개월.....홍중섭 · 10

만 난 사 람	충동원 전도를 파치고-장정일 목사.....	편집실 · 12
여 행 보 고	보다 나은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최 환 · 14
책 소 개	기독교의 기본진리.....	이형수 · 19
책 정 보	5월중 들어온 도서.....	도서실 · 19
교육이론	새로운 기독교 교육이론 및 방법 ③.....	문창수 · 20
칼빈주의	평신도를 위한 칼빈주의 해설 ⑦.....	김하진 · 22
편집실칼럼	풍성한 삶.....	김중주 · 24
권찰수첩	권찰이 갖추어야 할 일(3).....	김원남 · 25
선교소식	해외선교사 및 선교사 소식.....	해외복음선교회 · 26
새교우	4, 5월 중 새교우 · 결혼 · 별세자 명단.....	편집실 · 28
교회소식		편집실 · 30
편집후기		편집실 · 34
화 보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편집실 · 35
표지설명	우리 교회에서 농어촌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관심을 쏟은 지 10여년이 된다. 금년에도 충현기도원에서 농어촌교역자 및 평신도 초청훈련을 실시한다.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민에게 하신 부탁

〈신10 : 12-22〉

김 창 인 목사

(본교회 당회장)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으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1.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인생에게 무엇을 요구하며 명령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선생님이 제자에게, 부모가 아들 딸에게, 대장이 부하에게, 또 임금님이 신하와 백성에게 명령하며 하나님이 신자에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명령하는 일은 윗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복을 받으라는 고마운 심정으로 명령하는 일이 대부분이나 인간의 명령은 지혜가 모자라는 필요 없는 명령, 사람이 모자라는 억지명령, 공평하지 못한 억울한 명령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복종할 때에 주실 복이 준 비된 명령입니다.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명령이며 억울함을 당할 자가 없는 공평한 명령입니다.

2.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1)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2)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셀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우리나라가 일등국가는 못되지만 우리보다 자유가 없는 곳, 가난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이만큼의 자유와 부요에 감사하며 무엇보다 영혼이 천국의 영생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3) 조심하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인간은 선전에 속아 이용을 당하기가 일쑤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에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4)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끼리 맺은 약속은 수시로 변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약속대로 주십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순종해야 합니다.

5) 무조건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공의, 약속, 부요하심을 믿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에도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아들도 살려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 순종할 때에 조건을 따지는 순종보다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3.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명령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 하나님의 말씀 중심하고 사는 것입니다.

욕심따라 살지 말고 변하는 시대나 풍속따라 살지 말고 대 좁은 생각과 경험에 따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고 깨달아지는대로 일하고 봉사하고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하면서 살아갑시다.

2)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하신 이유는 죄 용서함 받는 길이 이 길이고 복받는 길이 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성과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 중현교회가 천국 일군양성, 북한선교,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성전건축, 이 엄청난게 큰 일들을 왜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심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3)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할례라는 말의 뜻은 '끊어서 버린다'는 뜻입니다.



끊어버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욕심, 미신, 거짓 등 못된 것들을 끊어서 아깝지 않게 버린다는 뜻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피가 나고 아프지만 몸에 유익하고 인격에 도움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4)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외롭고 피곤하며 돈이 없으면 배고픉니다. 누가 나그네입니까?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은 개인주의 생활 하지 말고 나그네 생활하는 동안에 나그네끼리 싸우지 않고 화목하라는 뜻입니다. 먼 길을 여행할 때에 시끄러운 친구가 옆자리에 앉게 되면 부담이 큼니다. 인생 나그네끼리 서로에게 부담주지 아니하고 붙들어 주고 권면하고 사랑하며 앞길을 같이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천천의 성도들은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4. 하나님의 요구를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1) 평안입니다.

첫째,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바울과 같이 감옥 속에서도 찬미가 나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명령 순종하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둘째, 몸의 평안입니다.

마음이 평안한 자는 몸에 병이 잘 들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몸의 건강유지하는 비법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받은 사람만이 가집니다.

셋째, 가정의 평안입니다.

마음이, 몸이 평안한 식구끼리 사는 가정, 희락의 웃음이 꽃핍니다. 가정의 평안은 마음의 평안을 가진 사람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네째, 직장의 평안입니다.

한결음 더 나아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가 평안합니다.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에 순종하면 평안을 주십니다.

2) 성공을 주십니다.

욕심을 떠나 교만한 마음을 버리면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만 기회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그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합니다. 전쟁포로의 에스더가 왕후가 될 기회를 에스더가 만들지 못하였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성공의 기회를 주십니다.

3) 장수하는 복을 주십니다.

4) 후손에게까지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순종하는 자의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후손이 창성하리라,

네 후손이 너에게 효도하리라,

네 후손이 천국시민증을 가지는 천국건설의 일군이 되리라,

후손의 복까지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요구를 순종하면 효자가 되고 자신도 복받아 범죄하지 않고 성공자가 되고 제자가 선생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실력을 키워 성공의 열매를 맺는 나무를 키우게 됩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쌓을 곳 없게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되시며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명령, 사랑이신 하나님의 명령,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명령, 약속의 복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합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조심하면서 순종합시다. 인내하면서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합시다.

이리하여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아 평안을 누리며 영육의 부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며 장수하는 생명의 소유자가 되고 후손까지 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기독교

김 차 생 장로

(월간중현편집위원)

그날의 비극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하루종일 포성에 산줄기가 울고 있었다. 능선에는 시신이 쌓이고 강물이 피로 물들어 흐르던 30년전 이 어제처럼 생생하다.

『6·25』—생략할수록 몸서리치는 민족상잔의 비극이었다. 북한공산주의 만행으로 삼시간에 우리의 산하가 초토가 되어 버린 『1950년의 6월』은 우리민족 역사에 피의 기록으로 남아있다. 이 처참한 기록을 되돌아 보면서 더욱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민족끼리의 싸움이었다는 것이다. 『동족상잔』, 다시 말하면 형제끼리의 싸움이라는 것이다.

민족과 민족간의 전쟁은 인류사에 허다하게 있는 것이지만 같은 동족이 피를 부르며 싸운 전쟁의 역사는 흔하지 않다. 이것이 6·25의 더 큰 비극성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 민족은 그때 일본 식민통치를 벗어난지 불과 5년밖에 되지 않았다. 36년동안 타민족의 압박에서 벗어나 민족이 새 비전을 가지고 대동단결을 해야 할 시기였다. 그렇게 해도 선진민족국가로 따라가기 어렵었던 우리들이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피를 부르는 전쟁판을 벌여야 했다. 이같은 어리석음으로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비극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형제와 형제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또 스승과 제자간에 살육을 일삼았으니 그날을 생각하면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이다.

그날 그 전쟁터에서 이름없이 죽어간 수많은 젊은 이들의 눈망을 속에 그려졌던 비극을 뒤라서 지워버릴 수 있는가?

『어머니』를 부르며 죽어가던 젊은이들의 처절한 모습을 상기하면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비극을 재연해서는 안된다는 강한 의지가 뭉클거리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날 포탄이 만들어 놓은 우물속에 적의 공습을 피해 물속에 뛰어들었던 어린이들의 허

우적거리는 것을 보고서도 전혀 올려주는 사람이 없어 죽어가던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길바닥에서 새우잠을 자고 피난을 못한 사람들이 그 무더운 90일을 벽장과 땅굴속에서 공포로 지새우던 것을 생각해보면 뒤라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도 좋겠다고 하겠는가?

그러나 이 땅에 전쟁의 요인은 가시지 않고 있다. 6·25의 그때와는 상상도 할 수 없을만큼 무서운 상황이 155마일의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대치되어 있고 남북쌍방이 가지고 있는 화력은 대단한 것이다. 다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때 이 민족을 멸망시키기에 충분하다. 생각하기조차 무서운 살상 무기들이 민족의 가슴을 향하여 그 총구를 내밀고 있는 것이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이것은 결코 정치적인 문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능력으로서는 더구나 아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만왕의 대왕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외엔 아무도 없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사에는 어떤 교훈이 있나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타민족의 손에 붙여 처절한 패전의 고비를 맞보게 했다.

이스라엘의 민족사의 골자가 바로 그것이었다. 여호와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패역한 짓을 했을때 전쟁이라는 무서운 재앙으로 징벌을 했던 것이다.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시94:12,13)

이스라엘 민족사의 교훈이 곧 우리의 교훈이라는

한국교회는 물량적인 성장을 추구하다가 지금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양적인 성장이 곧 교회의 성장으로 보는 황금만능주의가 된 것이다. 물질은 교회의 높은 자리에 올려 놓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교인들의 의식 구조 자체에 변화가 오고 있다. 신앙생활의 척도가 어느 사이에 물질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도식에서 우리도 환난의 날을 벗어나려고 하면 주의 법을 지키며 주의 교훈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6·25』—그 주일 아침을 앞두고 한국교회는 주의 법을 지키고 그의 교훈을 받는 입장이었던가? 불행히도 한국교회는 이 엄청난 민족수난의 전야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서로 파당을 짓고 교회가 분열이 되어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풍전등화와 같은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며 제사장의 직분을 다해야 할 교회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느냐고 묻는다면 할 말이 없다.

결국 우리 한국교회는 전쟁을 부르는 민족의 비극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아무일도 하지 못했다.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고난을 앞두고 회개를 외치는 예언자가 있었다. 그러나 그때 우리들에게는 예언자도 없었고 예언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 엄청난 민족의 시련 앞에서 무엇을 하는가? 155마일 후천선을 가운데 두고 남북이 어마어마한 살상 무기를 걸어 놓고 일촉즉발의 위기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가를 누군가가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6·25당시와 지금—무엇이 다른가

임박한 환난을 앞에 두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태평할 수 있는가? 우리 한국교회는 물량적인 교세의 확장에만 만족하고 있다.

개신교회의 교인이 지난 한 해 동안 2백만명이 늘어났다고 문화공보부가 통계를 내고 있다. 1984년 기독교가 1백년 되는 해에는 1천만명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한다.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이 숫적인 확대에만 만족하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교회가 국교였던 러시아제국이 왜 공산 소비에트연방이 되었는가? 그리고 전 국민이 크리스찬이었던 신성 로마제국은 과연 천국이었던가? 그리고

오늘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구라파의 나라들이 지상천국을 이루고 사는가를 묻고 싶다. 왜 10만 이상의 성직자들이 사는 로마는 도덕적으로 그토록 문란한가? 왜 오늘날도 교황이 백주에 총에 맞고 피를 흘리는 거리가 되었는가?

우리 한국교회는 전도열이 왕성하다. 지난 몇 년 동안 교파마다 경쟁적으로 교세확장을 위하여 열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숫적으로 많은 성장을 했다. 참으로 자랑할 만한 일이다. 우리는 우리 생애동안 5천만 민족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목격하고 싶다. 그래서 온 민족이 그리스도를 뼈대로 새로운 문화를 꽃피우며 살고 싶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과정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그 수의 확산작업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이다. 교회가 교회다와야 하고 교인이 교인다와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의 본질 즉 주의 법과 교훈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철저한 순교자적 신앙말이다.

우리는 화려한 예배당을 짓는 일과 함께 우리들 마음속의 성전도 새롭게 장식해야 한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너무나 외형적인 성장 발전에만 정신을 쏟고 있는것 같다. 보이는 성전을 짓는 일에만 정신을 쏟고 있는 동안 다른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기독교인들이 과연 교인다운 삶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고 싶다. 오늘 이 엄청난 위기의식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교훈을 좇아 살고 있는가를 반성해야 한다.

교회의 문턱이 높다는 말들을 요즘 자주 듣는다. 가난하고 병들고 무지한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다. 우리 한국교회는 성전미문에 앉은 앉은뱅이를 위하여 동전 몇푼을 던져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행한 것 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해

배가 태풍에 흔들리고 있는데도 배밑창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와 같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잠자고 있다. 사치와 열락에 도취되어 정신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 초대교회가 철저했던 성수주일문제, 주초문제, 경건생활등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주의 계명보다 제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솔직히 말해서 더욱 더 안타까운 것은 신학교나 교회강단에서도 철저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학사상도 자유주의 신학이, 신앙도 적당주의가 되어 버렸다.

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70년대의 경제성장과 함께 교회가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서인지는 모르지만 한국교회는 성전 미문에서 동전 몇푼을 던져주는 행위를 만족하고 있다. 그것은 주님의 교훈의 본질과 다르다.

한국교회는 물량적인 성장을 추구하다가 지금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양적인 성장이 곧 교회의 성장으로 보는 황금만능주의가 된 것이다. 물질을 교회의 높은 자리에 올려 놓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교인들의 의식구조 자체에 변화가 오고 있다. 신앙생활의 척도가 어느 사이에 물질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부흥회에서 부흥강사가 『천만원짜리 손들어, 5백만원짜리 손들어, 백만원짜리 손들어』라고 외치면서 헌금을 강요하였다고 한다.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오직 누가 교회를 위하여 얼마를 어떻게 바쳤는가가 중요할 뿐이다.

교인들의 생활방법도 그렇다. 옛날에는 근검한 것이 교인들의 생활의 모범이었다. 사실 오늘날에도 근검한 생활이 교인들의 생활의 모습이라야 한다. 교인들은 자신의 근검한 생활에서 얻어지는 물질을 교회와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치는 돈은 근검한 생활에서 얻어진 것이어야 한다.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복음사업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웨슬레 선생은 성도들의 돈은 과부의 남편이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는가? 오늘날 한국교인들은 너무 안이한 삶을 즐기고 있다. 위기 앞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환난의 날이 임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것이다.

배가 태풍에 흔들리고 있는데도 배밑창에서 잠자

고 있는 요나와 같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잠자고 있다. 사치와 열락에 도취되어 정신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 초대교회가 철저했던 주일성수문제, 주초문제, 경건생활등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주의 계명보다 제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솔직히 말해서 더욱 더 안타까운 것은 신학교나 교회 강단에서도 철저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학사상도 자유주의 신학이, 신앙도 적당주의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되니까 이단인 적그리스도와 배교적인 사상이 교회를 유혹하고 여기에 얼마나 물들어가고 있는가? 이 사실을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아는가? 모르는가? 천상의 주님은 다 알고 계시리라.

오늘-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30년전의 『6·25』를 까마득히 흘려가버린 역사속의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환난이 임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굿이 부인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155마일 휴전선의 철책이나 철조망이 권하고 남북이 통일되는 날을 모두가 열망하고 있지만 그 열망이 짧은 시간안에 해결될 조짐은 어디에서고 찾아볼 수 없다. 오직 위기에 고조되고 있을 뿐이다.

민족제사장이 되어야 할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상과 야합하여 미지근한 역사를 이끌고 간다면 언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또 어떤 시련을 주실지 모를 일이 아닌가?

한국교회는 교회의 문턱을 내려야 한다. 내 이웃의 굶주리는 사람들의 형편을 살펴야 한다. 저임금을 받으며 좋지 못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병들고 가난한 과부의 형편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펴야 한다. 그래서 본 교회는 산업전도부를 두어 이들을 돌보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형제 허물을 보기전에 내 허

우리들의 신앙이 살찌는 생활은 육신이 편하고 정신이 편한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하여 오고, 지금의 상황은 환난의 바람이 일렁거리는 태풍전야와 같은 상황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금 우리는 육신의 안일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진정 말세적인 현상이 세계의 도처에서 일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물을 찾아 고치고 회개해야 한다.

과당을 만들어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남을 섬기고 화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환난의 날을 피하기 위하여 주의 법과 교훈을 내 생활에 직결시켜야 한다.

에배당에 나왔을 때의 나와 세상에서의 내가 같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들의 생활이 내 가정 중심에서 교회지향적이고 민족지향적으로 가치관이 달라져야 한다.

나와 내 집과 내 교회만을 위해서 살던 삶이 이웃과 겨레와 전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내가 이 역사 속에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생각에서 자기의 가치관을 정립해야 한다.

우리들의 신앙이 살찌는 생활은 육신이 편하고 정신이 편한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하여 오고, 지금의 상황은 환난의 바람이 일렁거리는 태풍전야와 같은 상황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금 우리는 육신의 안일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진정 말세적인 현상이 세계의 도처에서 일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민족이 일어나서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서 나라를 치며 지구 전체가 전쟁의 와중에서 만신창이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예이레에서, 중동에서, 인도차이나에서, 어디에서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북괴의 동향은 우리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긴장이 장기화되는 동안 우리들의 신경은 마비되어 이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사실상 잠자고 있는 것이다. 이 긴박한 환난의 날에 아무런 대비도 없이 집을 단장하고 안일한 생활을 위해서 정신을 쏟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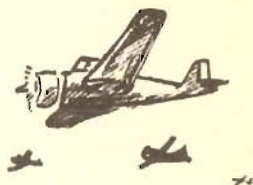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늘에 달을 듯 달을 듯 싶더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고 멸망할 도

시를 향하여 우시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서울도성을 향하여 울고 계시지 않겠는가?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이 민족에게서 멀리 하소서.

우리가 이 도성을 부들켜 안은 회개의 눈물이 한국교회에 있어야 하고, 강단에 있어야 하고, 단체에 있어야 한다.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피비린내 나는 환난이 없기를 우리 모두 기원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벧전 2:11, 12〉

공산치하 3개월을 서울서

홍 중 섭 장로

(심방위원회 위원)



고요하고 화창해야 하는 주일 아침이 불안과 공포로 감돌고 있었다. 이날 새벽 38선 전체에 인민군이 남침, 서울 장안은 공포분위기로 싸여 있었다. 경황 없는 가운데도 나는 신당동에 있는 성산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 울지로 4가에 이르니 휴가 병들이 화물차를 타고 본대로 귀대하는 모습이 여기 저기 눈에 띄었다.

38선이 늘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처럼 38선 전지역에 걸쳐 남침하리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었기에 아직도 뭐가 뭔지 어리둥절한 상태였다.

국가의 안전과 교회의 평안등을 기원하며 예배를 마치고 경동교회당앞을 지나는데 공중에서 인민군 야크전투기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저공을 선회하면서 선전 배라를 뿌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아군 비행기인가 했는데 인민군의 야크전투기임을 확인하자 이북 출신인 나는 눈앞이 아찔해졌다.

의대 수련의로 서울에

나는 9월이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할 예정으로 소망에 부풀어 있는 의학도토씨 오장동에 있는 어느 개인병원에서 야간 수련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

나의 마음은 더욱 초조하고 착잡했다. 이북출신 급우들은 전방으로 부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출동하였다. 나는 계속 개인병원에 남아서 후송되는 부상병의 치료를 하고 있었다.

서울 북방에서는 계속 포성이 멈추지 않았다. 그 당시만 해도 라디오나 신문등의 보도등이 정확치 못했다. 믿을만한 소식이 없어 더욱 궁금했다. 서울시 내에는 피난보따리를 지고 피난가는 행렬이 계속적으로 늘어났다. 전세는 무척 불리한 듯 하였으나 우리는 국군이 잘 지켜 주려니 했다.

불안과 초조한 날이 이틀 지나 6월 27일, 이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저녁 무렵부터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병원 2층에서 북쪽 하늘을 보니 포성과 함께 포화가 자주 보이기 시작했고 포성은 점점 더 가까이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멍청하니 북쪽하늘을 바라 보고 있었다.

공산치하의 서울—인공기가

국군과 경찰은 비를 맞으며 한남동 방면으로 후퇴를 하고 있었다. 밤새도록 거리는 피난가는 행렬들과 후퇴하는 국군과 경찰로 메워졌다. 병원 원장과 그의 가족들과 함께 피난가려고 짐을 꾸려 6월 28일 새벽 피난길을 나서려고 하는데 문밖에서 인군 주민이 인민공화국 기를 붙이며 「피난 갈 필요가 없다. 서울은 이미 점령됐다.」며 한마디를 던지고 갔다. 나는 이때 인공기를 보고 또 다시 놀랐다. 인공기를 보지 않으려고 서울로 왔는데 여기까지 인공기가 따라왔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섬적해지기도 했다. 멀리 는 몸과 마음으로 병원 2층 북쪽창을 통하여 울지로 방면을 보니 해군주차장 국기계양대에 태극기 대신 인공기가 펄럭거리고 있었다. 난생 처음보는 육중한 소련제 탱크가 울지로를 진주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 지 암담하기만 하였다.

3일만에 서울 점령

38선을 침범한 지만 3일만에 서울 거리는 온통 붉은 깃발의 공산천하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날부터 3개월동안 병원 원장과 나는 숨어 사는 처

지가 되었다. 서울은 생지옥과도 같았다. 땅굴 속에서 미국의 소리방송을 듣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하루종일 숨어 있었다. 처음에는 국군이 계속 후퇴한다는 소식만 들렸다. 그러던 중 7월에 접어들면서 B29가 서울 상공에 나타나서 기관총을 쏘고 로켓탄을 발사하기도 했다. 이렇게 비행기만 뜨면 우리들은 소망을 가지고 언젠가는 서울이 탈환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비행기의 폭격이 뜸해지면 미군이 손이 빠지나 않나하고 걱정이 들기도 했다.

거의 3개월이 다 되어 갈때 땅굴 속에서 듣는 미국의 소리방송은 아군이 처음으로 탱크를 쳐 부수며 북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와 원장은 서로 일사단결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밤낮 들어가 숨어 있었던 땅굴은 원장선생님과 내가 협력하여 만든 것으로 다다미방의 다다미를 들어내고 마루를 자르고 땅을 파서 숨어 있으면 원장 사모님이 마루를 덮고 그위에 다다미를 다시 덮고 또 그위에 장승을 놓아 감쪽같이 원상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탈환 직전 인민군에게 잡혀

이처럼 악몽의 3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UN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면서 서울은 계속 폭격세례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나는 3명의 인민군에게 붙들려 인민위원회 3층에 감금되었다. 이제 곧 국군과 UN군의 서울탈환을 눈앞에 두고 이처럼 잡혀 있자니 원통하기까지 하였다. 이제 이들이 후퇴하면서 죽이고 가든지, 아니면 북으로 끌려 가서 죽일 것은 뻔한 일이었다. 이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는 3층에서 뛰어 내렸다. 신기하게도 조금도 다치지 않았다. 나는 다시 병원으로 도망쳐 숨을 수 있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도우셨던 것이다.

서울은 온통 불바다

며칠 후 추석날, 국군과 UN군은 한강을 건너 서울에 입성한다는 미국의 소리방송이 있고 곧이어 인민군이 남산에서 밀려 후퇴하는 모습이 보였다. 인민군의 감지도 사라졌다. 이제 악몽의 3개월이 끝난 것이다. 원장선생님이 오늘은 추석날이니 저녁에는 나물밥을 해먹자고 해서 저녁을 차려 먹으려는데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포탄은 무차별하게 계속적으로 떨어졌다. 서울 시내가 온통 벌겍게 불타고 있었다. 우리는 급히 지하실로 숨었다. 폭격이 뜸한 틈을 타서 나물밥을 주먹밥으로 만들고 병원기구를 짊어지고 지금 광희 고가도로 밑에 있는 하천 다리밑으로 피신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주하는 패잔병이 무슨 짓

을 할 지 몰라서 남자들을 가운데 두고 여자들이 밖에서 둘러싼 가운데 밥을 새웠다. 이곳에서 집에서 해온 주먹밥을 나눠 먹었다. 죽만 먹고 나물만 먹다가 3개월만에 처음으로 먹는 밥이었다. 정말 밥이 이처럼 맛있을 때가 있었던가.

동이 터 오고 있었다. 이 다리 밑은 낮에는 다 노출이 되기에 다른 곳으로 피신해야 했다. 그러나 온통 폐허 투성이이기에 피신할 곳이 없었다. 그러던 중 지금 경동교회 뒤 장백학사라는 이복에서 온 고학생들이 기거하던 건물 지하에 큰 방공호가 있던 것이 생각나서 그곳으로 병원 가족들과 같이 들어갔다. 방공호 안에는 벌써 먼저 온 가정이 몇가정 있었다.

그곳에서 보니 시립병원(지금은 국립의료원)에 태극기가 펄럭거리고 있었다. 참 감격, 바로 그것이었다. 우리는 모두 경건히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때처럼 절실하게 감사해 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모두에게 다 고마움이 넘쳤다.

1·4 후퇴시 군의관으로

전황은 우리의 것이었다. 계속 북진의 소식을 들으며 이제는 오히려 이복의 고향에 갈 희망을 갖게 되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는 10월, 힘을 모아 병원을 재건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1951년 신년 벽두부터 다시 피난길이 시작됐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황이 뒤 바뀌기 시작했다.

나는 6. 25 때 함께 고생하던 병원 원장선생님과 이별하고 서울대학병원 의사 동료들과 함께 용산역을 떠나 인천으로 가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 육군 군의관으로 임명받았다.

군의관으로 임명받고 양구 북방에서 1년간 전투에 참가하고 육군병원, 논산훈련소, 1군사령관등을 전전하며 만 8년간 군의관 생활을 하였다.

6. 25 동안 3개월간의 생지옥 생활. 전투, 군의관 생활로 이곳 저곳 다니며 어려운 가운데 나의 믿음은 점점 자라났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며 충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논산재직시에는 그곳 교우들과 함께 고려과의 제일교회를 세우고 원주재직시에는 나의 모든 재산과 정성을 바쳐 고려과의 남산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세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며 더욱 충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뵈울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깊이 느끼게 되었다.

이젠 6. 25가 난지도 31년째, 모든 것이 잊혀져 가고 있지만 그때를 생각 할 때마다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과 원주의 남산교회가 눈앞에 환하게 되살아난다.

총동원 전도를 마치고

태신자 전도 계속해야

지원, 협조 충분했지만 규모가 커서 전체동원 어려워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매년 총동원전도의 달을 정하고 한 달은 전 교인이 전도에 열심을 쏟고 했는데 금년엔 예년보다 좀 더 실제적이었고 또한 그 결과를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획이나 진행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요.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지원이 잘 되어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시간 할애 등을 많이 해주시고 하여 원만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회의 규모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한가지 일을 오래동안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교회 같으면 총동원전도를 교회의 목표로 정하고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엔 뚜렷한 목표가 있고 다른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 일에 교회 전체가 집중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4.5월 두달을 실시했는데 한달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직 기구면에서도 주일학교만 해도 주일학교만 가지고 총동원 전도를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또 구역도 편도체제로만 있을 수 없지요, 계속해서 심방, 성경공부 등을 해야 하니까요. 이런 면으로 볼 때 노력에 비해서는 효

과가 좀 적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엔 주교교사·학생·구역·각 개인에 이르기 까지 전체를 동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이 점도 제대로 되지 않았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은 상호 협력이 없었다기 보다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16부를 하나로 해서 총동원 전도를 실시하고 조금 간격을 두어 성인을 중심으로 총동원 전도를 펼치고 하면 진행이나 결과면에서도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두 전도대를 함께 훈련시키며 실시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총동원전도는 예년과는 좀 다른 면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전도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 되나요? 그리고 이번에 「태신자」라는 개념을 새롭게 받아 들였는데 태신자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연구하며 발전시켜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전도의 특징은 심방전도이지요, 연결 심방전도이기 때문에 현재 조직되어 있는 구역을 그대로 살려서 구역원들을 훈련시키고 심방체제를 그대로 전도하도록 유도했기에 별다른 무리가 없었고 이에 대

한 반응도 좋은 것으로 봅니다. 작은 교회라면 전체 동원이 가능하기에 효과가 훨씬 좋았으리라 보는데 워낙 크기 때문에 움직이는 속도가 느리고 또 이런 전도를 구체적으로 해 보지 않아서 빨리 빨리 이해되지 못하여 느린 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태신자 전도카드를 사용했는데 좀 벅찼습니다. 4월 셋째주에 카드를 배포하고 5월 초에 인도하라 했으니까요. 앞으로 가능하다면 연초 수련회시에 카드를 배부하고 2-3개월 후에 인도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금년 총동원전도의 목표를 「배가(倍加)」로 했는데...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매주일 수십명씩의 새신자가 소개되고 했는데 어떤 점에서는 자주 새신자가 생겨도 장소 때문에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전도목표에는 미달입니다만 전도 실적은 있었습니다. 새로 나와서 등록한 사람의 경우 5월 첫주부터 다섯째 주까지 451명이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첫주 새신자 환영회에는 303명이 출석했는데 이중에는 등록하지 않는 사람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미등록자를 합치면 많은 수의 사람이 금번 기회에 교회를 한번씩은 다녀 갔다고 봅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결과는 이처럼 숫자로 그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

는 즉 전 교인이 전도에 대한 관심과 또한 자신의 「태신자」를 생각해 보고 각자가 전도해야 할 대상을 하나씩 정할 수 있었던 점과 전도의 결과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기에 전도를 열심히 하면 교회가 부흥하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해서 새신자가 늘어나지만 새신자를 계속적으로 돌보지 않으면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돌아 가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기에 육성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무슨 육성계획이라든지 있는지요, 또한 우리 교회는 장년새신자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다 가능한지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육성은 심방부서와 교육부에서 하기로 되어 있기에 전도부서에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는 교육부서의 장년새신자부가 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는 스스로 장년새신자부를 찾아 오는 사람에게만 교육을 시킵니다. 그외의 새신자를 심방부에서 심방을 하며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새신자가 급증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를 충분히 감당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우선 장소면을 생각해봐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앞으로 전도부서에서는 교육부서나 심방부서에서 손이 못 미치는 경우 문씨전도를 통해 이 문제를 도울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신자를 위한 안내책자 또는 육성에 대한 좋은 문서들을 개발하고 만들어 도울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연구 중입니다.

목사님께서 전도위원회를 전담 지도하시게 됨으로 우리 교회의 전도 전략 방향등을 생각하셔야 할텐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선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를 조직화 하는 일과 전도방법의 개발입니다. 이번엔 태신자 전도방법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총동원전도에는 효과적이지만 지역적으로 할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현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 특징적인 전도가 있다면 내교회 중심의 전도보다는 교회밖을 중심으로 하는 전도가 많은 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가 비데오, 라디오 방송전도, 문서를 통한 전도들이 많은 점입니다. 금년에 도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전도지를 50만장 구입했는데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동원 전도를 마치면서 내년에 계속해서 연결되어야 할 일과 또 반성해야 할 점들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전도는 전도부서만의 일이 아니고 교회 전체의 일이고 각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아뭇튼 이번 봄한 철을 거의 전도를 위해 할애해 주신 교회와 당회장목사님이 허락해 주셨고 또한 모든 것을 교회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매주일 안내를 맡아 수고해 주

신 남여전도회, 산업전도회, 북한선교회원들과 전도위원장, 전도위원회 위원들의 수고와 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한 주일에 100명 이상 오게 되면 장소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장년새신자부에서도 한 주에 100명 이상 오게 되면 현재로서는 어려운 점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에 8, 90명 정도로 온 것도 일하는데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총동원 전도가 끝났다고 태신자 전도가 끝난 게 아니니까 태신자 카드를 제출하고 교회로 인도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엔 5월에 실시했는데 이는 예년에 6월의 실시에서 6월은 전도 활동하기에 좀 어려운 시기라고 5월에 했는데 5월은 또한 「가정의 달」등으로 교회행사가 많고 5월도 전도활동에는 덜 효과적입니다. 내년에는 3, 4월로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합니다. 또한 6월 첫주에 가진 새신자 환영회도 매우 활기가 있고 좋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새신자 환영문제는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실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의 공사광경〉



보다 나은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최 환 집사

〈새성전 건축 현장감독〉

워싱턴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명물들이 많이 있지만 미국을 소개하는 비중이 너무 크고 앞으로 여러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이만 줄이고 이번호에 필라델피아와 뉴욕을 끝으로 미국의 장을 마치고자 한다.

전자에 몇회에 걸쳐서 유대교 물몬교회를 소개한바 있었는데 이것들은 우리의 예수교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교리이나 건물의 형태나 공간구성의 이미지를 관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본 지면에 소개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필라델피아와 뉴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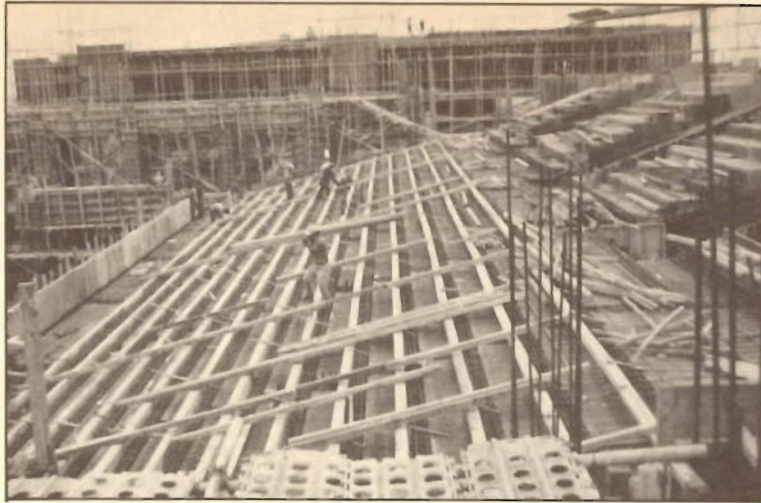
12일째 되는날 볼티모아에서 워싱턴의 모든 것을 보기 위해서 투숙하는 것을 마치고 필라델피아로 가기로 결정하고, 짐을 챙겼다. 노

광현장로님의 배재고교 동창생인 박종수씨가 우리를 필라델피아까지 안내하기 위하여 큰 승용차를 가지고 볼티모아까지 왔다. 우리 일행은 김창호씨 내외분과 인사를 마치고 필라델피아로 향했는데 약 1시간 30분 걸려서 목적지까지 도착했다. 저녁에는 배재졸업 동기동창생들이 세명 모였고 우리 일행을 저녁식사에 초대하여 서로 정담을 나누며 즐겁게 식사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 이튿날은 1981년 1월 18일 주일이었다. 우리 일행은 노광현장로님의 동기동창생이며 죽마고우(竹馬故友)인 변호삼씨가 그의 부인과 같이 차를 가지고 와서 뉴욕을 안내하겠다고 하여 박종수씨는 그의 부인과 우리 일행을 배웅할겸 나섰고 주일에 배에도 참석할 겸 따라나서며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떠나기로 약속을 했다. 약 1시간 가

량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11시가 넘어서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 후랭크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가 설계한 유대교회(Jewic Temple)를 답사했는데 평면형식은 5각형이고 특이한 것은 출입구쪽을 재미있을 정도로 아름답게 설계하였으며 지하실쪽은 소강당 형태로 마음대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설계가 되었다.

본 성전은 좌석수가 1,200석이고 지붕형태는 5각형의 각추형태로 천창(天窓)을 두어서 스카이라이트(Sky Light)를 이용해서 내부를 아늑한 분위기로 조성했다. 1953년에 설계를 시작해서 1954년에 마쳤으며 공사는 1954-1955년에 완공한 건물로서 의자는 독립의자로 편리하게 배치가 되어 있었다.

유대교의 이름은 신아고구(Beth



〈본당 3층 신자석 부분 공사가 한창이다〉

Sholom Synagogue)이며, 펜실바니아 엘킨공원 근처(Elkins Park, Pennsylvania)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유명한 건축가 후랭크로이드 라이트가 그다지 건물이 크지는 않지만 주위의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물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고 천창으로서 자연적인 조명을 이용하여 분위기 조성을 했는데 즉 건물의 외부에서 풍기는 미는 5각의 예리한 형태를 부드러운 자연미에 조합(Mixed)해서 인간의 안정감을 이에 끌어들이고 시설을 집중시킬 수 있게 분위기 조성을 했다고 느낄 수가 있었다.

유대교의 전학을 마친뒤 조금 떨어진 곳에 한인개척 장로교회에 도착한 시간이 2시경이었다. 그곳의 담임 목사님은 이용걸 목사님으로 우리교회 정상우 목사님이 후임제 일교회 가시기 전에 시무하시던 목사님이라고 했다. 이곳 교회는 오전중에 미국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한국인들은 오후에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설교의 말씀은 엡 3:14-21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하옵시고...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기원하노라 아멘”의 말씀내용을 가지고, 세상의 육신은 낡고 늙고 부패해지고 더러워지지만 믿음의 영의 생명은 날로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믿음이 자라고 또 더욱 금년에는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봉사하자는 말씀으로 우리 일행은 크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어디를 가나 어려운 환경에 부딪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평안으로 우리의 영이 통일되는구나 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혼잣말로 뇌아렸다. 예배를 모두 마친뒤 일행은 기념 촬영을 마치고 작별인사를 나눈 뒤 변호사씨의 안내로 3시간 고속도로 길을 달렸지만 별로 지루한지 모르고 뉴욕 43W 32번가에 있는 스탠포드 호텔(Stanford Hotel)에서 여장을 풀었다.

이 호텔은 3류 호텔 정도로 보였는데 호텔 숙박비도쌌다.

뉴욕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102층 건물인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Empire State Bld.)도 걸어 갈 수 있었고 102층까지 올라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3번씩이나 바꾸어 타고 올라가서 뉴욕시 (맨하탄)의 야경을 한 눈에 바라볼 수가 있었다.

14일째 날, 변호사씨 자신이 자기의 바쁜 사업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제와 오늘을 우리의 일행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성전건축을 위해서 수고하기로 결심을 하였다니 참으로 고마웠다.

변호사씨는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근처에 있는 교회쪽으로 안내를 했는데 이 교회는 뉴욕의 많은 빌딩 숲속에 아름답게 서 있었다. 교회 이름은 세인트 패트릭 성당 (Saint Patrick's Cathedral)으로서 온전한 고딕형태이며 첨탑이 2개였고 전체가 석조건물이었다. 평면의 형태는 십자가로 내부의 5세주 3랑식 형태이며 내부의 모든 것이 잘 정리되어 있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전실이 없이 직접 본당 객석(Nave)으로 들어오게 된다. 워싱턴교회가 웅장하고 크다면 이 교회는 아름답고 정교했다. 외부에 돌을 붙인 것은 거치른 정다듬으로 워싱턴 교회와도 달랐다. 이 교회가 뉴욕 중심가이므로 걸어서 브로드웨이(Broad Way)를 산책할 수도 있었으며 중앙공원(Central Park)도 산책할 수 있었다.

유엔센터도 내부까지 들어가서 보았는데 그곳에서는 홀(Hall)의 처리와 본 회의장에도 들어가 그곳에서의 음향관계, 벽면의 처리형식등을 엿볼 수 있었으나 건물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용재료는 특수한 것들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었으며 국가 계양대를 보니 우리나라보다도 미개하고 조그만 나라도 다 국가가 매달려 있는데 태극기만은 빠져 있어서 우리 자신들이 비굴함을 금치 못했다.

미국을 두루다니며 최신행의 개신교 형태는 보지 못했고 무디교회나 로버트슐러 목사님의 수정교회 이외에는 볼 수가 없었다. 다만 물론교회의 최신행 교회나 유대교의

최신형만이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 도사린 의문은 풀 수가 없었다.

우리 총현교회는 외부 형태는 비록 고딕형의 절충식이지만 내부형태는 본당 예배실의 좌석수가 많기 때문에 음향 관계상 형식에 구애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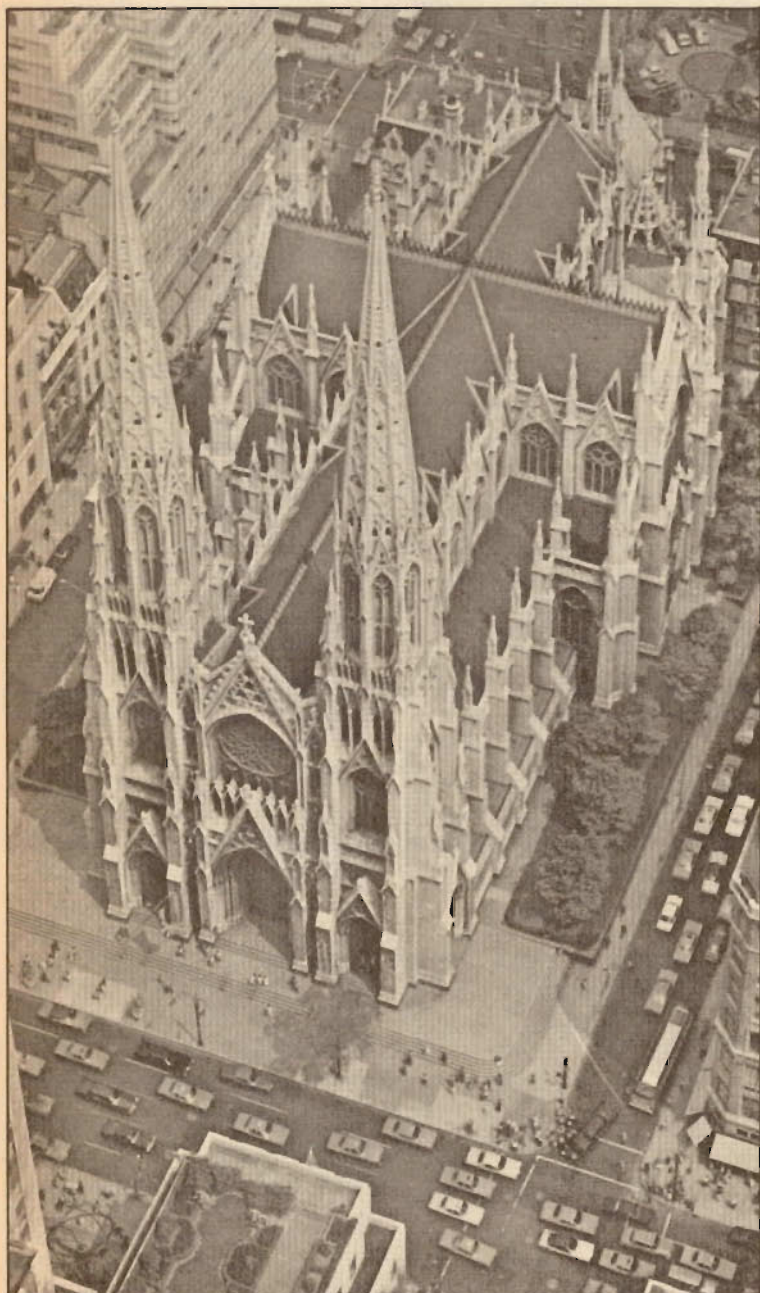
받지 않고 실용적인 면에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결심했다. 이에 맞추어서 강대부분은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은 아직도 풀리지 않아 머리속에 간직한채 앞으로 여러곳을 견학할 기회가 많으니 계속 노

력하면서 다니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속소로 돌아갔다.

15일째 되는 날, 총현교회에서 자라난 이종표 목사님께서 현재 뉴욕 한인빌립보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시무하고 계시는데 차를 가지고 우리 일행을 몇몇교회에 안내하겠다고 오셔서 먼저 리버사이드 교회(River Side)로 갔다. 이 교회는 사진으로도 보았고 이름도 많이 들었던 교회로서 미국의 대부호인 록펠러씨가 건축위원회 회장이고 거의 전액을 헌금해서 성전건축하는데 봉사했다고 한다. 이교회는 침례교이고 본당의 좌석수는 2,500석이고 건물의 길이는 약 70m (215feet), 천정높이가 33m (100feet), 건물폭이 약 28m (89feet)이며 이 교회 건물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종탑으로서 종탑의 높이가 22층이며, 각 층은 엘리베이터 8인승으로 오르내리고 각 층별로 각방이 수십개가 있어서 여러 용도로 쓰이고 있다. 종탑층(22층위)은 56개의 종을 3개 층으로 나누어서 배치를 해 놓았는데 필요시마다 아름다운 찬송가 곡조가 맨허튼을 향하여 퍼진다고 한다. 이 교회의 외부벽체는 전체가 돌로 되어 있는데 아름답게 붙여져 있다. 그 외에도 부속건물에는 객실이 있는데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활동을 할 수가 있으리라고 느껴졌다.

리버사이드 교회의 견학을 마치고 이종표목사님은 한 곳을 더 가보고 하시며 길을 건너 조그마한 마을로 들어가서 조그마한 교회를 찾아갔는데 이 교회는 약 300석 정도인 교회이지만 교육관 시설이 잘 되어 있었다.

어린이들의 키에 맞추어 유치부는 유치부 어린이에 맞게 중등부는 중등부 어린이에 맞추어 의자를 만들었는데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의자나 책상 다리는 나무에다 철관을 붙여 만들어 놓았고 방의 내부의 분위기는 참으로 온화하고 정돈이 잘되어 있었다.



〈세인트페트릭성당—뉴욕의 빌딩 숲속에 묻혀있다〉

17일째 되는 날, 미국의 여행은 뉴욕을 종점으로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다. 우리 일행은 변호사씨 부인이 차로 공항에 배웅을 해주었기 때문에 편하게 영국행 비행기를 탈 수가 있게 되었다.

나는 비행기 안에서 명상에 잠기면서 미국여행의 총정리를 하기 시작했다.

미국이란 곳은 너무나도 넓은 곳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크고 대범하고 시원스러웠다.

미국여행의 정리 및 연구해볼 문제는...

① 건물을 짓더라도 외부에도 충실했지만 내부에 신경을 더 쓰고 그곳에서 생활하기에 최대한으로 편

리하게 꾸민 것을 볼 수 있었고

② 또한 건물주위의 조경과 미화에 세심한 노력으로 건물과 조화를 이루었으며

③ 도시계획에 잘 순응하여서 도시미화에 크게 협조하였다는 점과

④ 건물 내부는 쓰기에 편리하도록 음료수설치, 공중전화, 기타 공공이 사용하는 것을 위주로 했으며

⑤ 대규모의 건물에는 건물을 찾기 쉽게 건물의 안내도와 표지, 화살표 등을 친절하게 배치했으며

⑥ 주 현관 근처에는 안내책자나 카세트테이프나, 슬라이드 필름이나, 카타로그나, 우편엽서를 팔 수 있도록 트인 카운터를 두어서 안내도 할 수 있게 배치하였으며

⑦ 천정의 재료는 여러 사람이 통

행하는 곳이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은 흡음재료로 품질(Spray)을 제일 많이 사용했으며

⑧ 벽체의 치장은 가급적이면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곳은 대리석이나, 돌, 혹은 벽돌치장쌓기(미다시 見出)가 많았으며

⑨ 사무실의 간막이 벽은 거의가 경량 이동식 간막이를 많이 사용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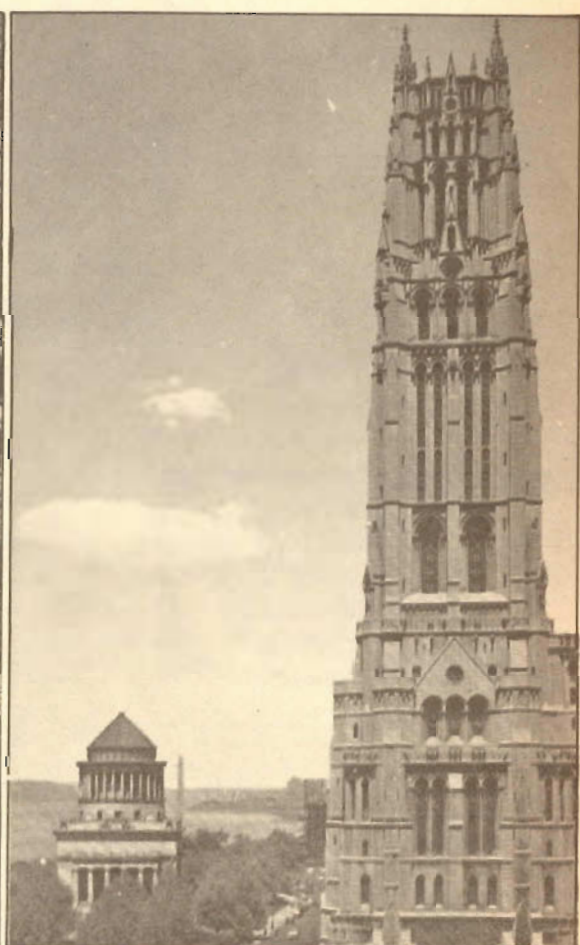
⑩ 넓은 집회실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즉 리셉션홀, 식당대용, 회의실, 유희실 등으로 사용)

⑪ 문의 손잡이도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서 설치했으며

⑫ 벽체에 그림을 붙이거나 표어를 써서 붙이거나 안내도를 붙이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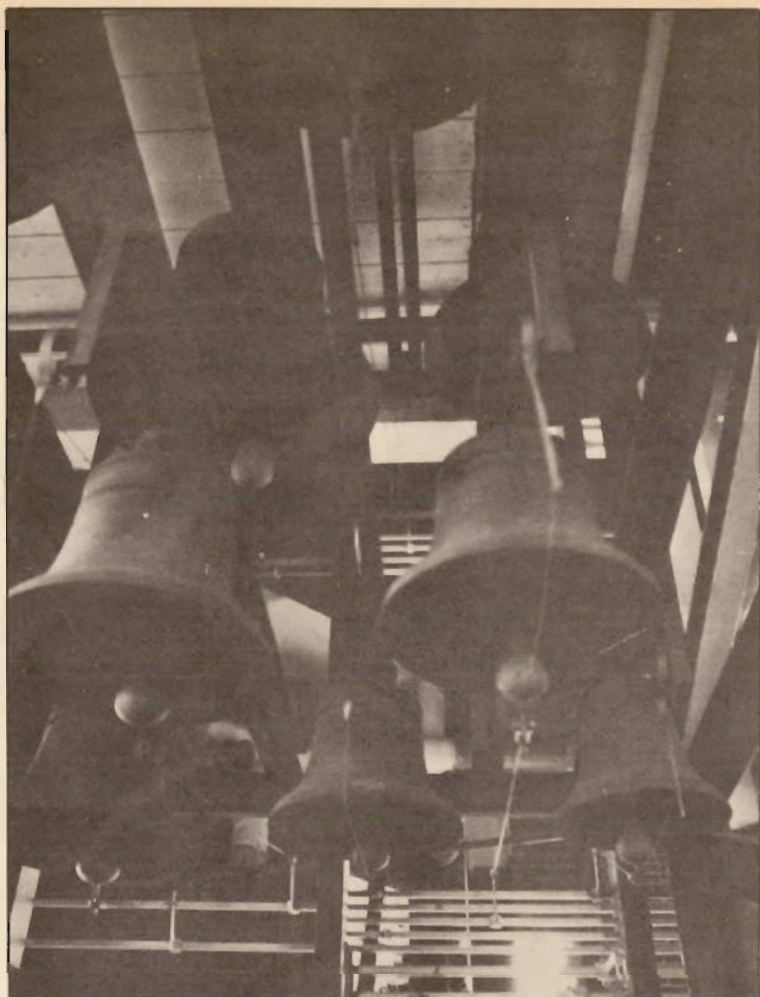


〈정면에서 본 리버사이드교회〉



〈강쪽으로 본 리버사이드교회〉

〈리버사이드 교회의 종탑속에
종을 배치한 장면
큰 종은 둘레가 3m, 높이가
3m인 종도 있다〉



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요소 요소
에 벽체일부를 파서 복스를 만들어
넣고 유리로 모양있게 매었다 붙였
다 하기 쉽게 짜 넣어서 모양도 미
리 건물지를 때 짜서 넣었다.

⑬ 이용할 수 있는 모퉁이는 다
이용했고 질서있게 정돈이 되어 있
었다.

우리 교회도 새성전 건축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연구 검토해 가
면서 건물이 완성되는 날까지 설계
를 하고 연구해 나가야 될 것이
다.

미국에서 한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초현대식으로 건축한 건물
을 별로 보지 못했으며 19세기 이
전 것들만 많이 보았기 때문에 구라
파의 교회들을 답사할 때에는 가급
적이면 현대식으로 지은 교회모양
도 보아야겠다고 느껴졌다. 〈계속〉



상보안경원

대표 갈형석

1. 각 안과 의원처방을 정확하고 신용있게 만듭니다.
1. 고굴절 렌즈로써 고도의 기술로써 봉사합니다.
1. 경주남석, 전문취급업소로써 보증판매합니다.

명보극장내거리

常寶眼鏡院 267 - 0946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 관계와 그밖의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 5월 중 들어 온 도서 -

I. 구입도서

1. 주석류

1) 욥기; 랑게저. 김진홍역. 백함출판사, 1981, 770P. 21cm.

2. 조직신학

1) 성령; 월부어드, 존저. 이동원역. 생명의말씀사, 1981, 367P.

3. 설교학

1) 설교연구; 애덤스, 제이저. 박광철역. 생명의말씀사, 1980, 389P.

4. 기독교교육

1) 기독교교육의 원리와 실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부편, 1981, 170P.

2) 기독교교육; 반피득저.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430P.

5. 예배 및 교회음악

1) 찬송가각; 김경선저.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907P. 24cm

2) 교회음악학; 김의작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부편, 1981, 148P.

3) 주교예배학; 김수학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편, 1980, 171P.

6. 목회학

1) 현대목회종합계획; 한명수저. 크리스찬비전하우스, 1981, 810P. 23cm

2) 카운셀링과 정신의학의 대화; 브리스터, C. W저. 민병호역. 성광문화사, 1981, 315P.

3) 성공적구역; 조용기저. 영산출판사, 1980, 201P.

7. 기독교윤리

1) 순종; 머레이, 앤드류저. 김문학역. 예수교문서선교회, 1981, 121P.

2) 결혼과 사랑; 스트라우스, 리차드저. 김성임역. 생명의말씀사, 1981, 143P.

□ 한 달에 책 한 권씩 읽읍시다 □

.....신문·잡지 얼마를 읽는 것으로 독서한.....
.....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여념이 없는 우리 평신도들로서는 중요.....
.....성을 인식하면서도 좀체 책을 대하지 못.....
.....한다는 것이 숨김 없는 고백입니다. 그.....
.....러나 이런 상태로 머무를 수는 없습니.....
.....다. 우리 신앙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귀.....
.....한 책들을 골라 적어도 한 달에 책 한.....
.....권씩은 꼭 읽는 습관을 키워 가자는 의.....
.....도에서 우리는 전교인들을 향해 이와.....
.....같은 캠페인을 벌입니다.
.....「월간중현」편집실.....

□ 책소개 □

존스토틀 지음 윤성범 옮김

기독교의 기본진리

생명의 말씀사, 223P. 800원

「기독교의 기본진리」라는 제목에서 우리는 흔히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가 서술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다. 그러나 우선 우리는 그 오해를 풀고 이 책을 대했으면 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본다. 또한 기독교는 지적으로 존경할 만 하지 못하다는 내심의 회의에 빠져 있는 경우도 흔한 일이다. 그들은 대부분 무비판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되면서 부터는 그들은 어린 시절의 신앙을 버리는 편이 그 신임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수고하느니 보다 훨씬 편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은 쓰여졌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즉 기독교의 진리 및 그 적용을 사려깊게 탐색하려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통하여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 삶과 어떻게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삶속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 것을 밝혀 주며 이런 일련의 모든 일이 기독교의 기본진리(Basic Christianity)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형 수, 집사(월간중현 편집부장)

오늘의 교회—무엇이 문제인가?

〈교회의 조직〉

문 창 수 목사

서울 강남의 A 교회는 교회가 선지 10여년이 되었는데 재작년까지의 교인수는 250여명 내외였다고 한다. 교인숫자가 늘지 않아 작년 1년간은 목사님이 당회나 제직회 의견을 거의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고나간 결과 1년 만에 교인이 400여명으로 증가되었다고 한다(일방적으로 밀고 나간다고 숫자가 반드시 증가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일은 목사가 소신껏 혼자 밀고나갈 것이지(독재) 당회나 제직회와 의논해 나갈 것이 아니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다간 교회부흥에 지장이 크기 때문이다. 그 교회 교인들 역시 교회가 부흥(?)되었으니 목사님께 할 말이 별로 없는 모양이다. 교인 숫자가 늘어났으니 헌금도 늘었을 것이고 교회당 증축도 빨랐던 것은 물론이다.

이 교회의 사역목표는 교인수 증가에 있었다. 교인이 증가하면 '부흥'이요, 교인이 늘지 않으면 부흥이 아니다.

숫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 점에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숫자만 늘고 교회(제도화된 교회가 아니다)의 기능과 교인들의 신앙의 성장이 없다면 숫자부흥은 별 의미가 없다. 그 이유는 전호(5월호)에서도 지적했듯이 교회의 궁극적 목표는 숫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 첨가해서 강조해야 할 것은 교역자가 일방적으로 밀고나가는 교회에선 교인들의 성장이 없기 쉽다는 사실이다.

이 지점에서 교회의 목표와 기능을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자. 교회의 목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엡 4:15-16)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지체가 그 분량에 따라 활동하는데

로 마디마다 공급을 받아 단단히 결합되고 서로 어울려 몸에서 자라 사랑 안에서 몸을 세워가는 것임이다" — 새 번역).

이 성경 본문의 요지는,

첫째, 생명에는 개체적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합체적 차원**(Corporate dimension —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생명이다)도 있다.

둘째, 집합체적 생명의 성장을 교인들의 숫자나 복잡한 조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교인들의 모임과 인격적 관계**(personal intevrelationship — 조직적 관계가 아니다)를 말씀하고 있다.

세째, 교회(그리스도의 몸)가 성장하려면 각 교인들이 받은 은사를 **활용할 때에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가 성장(숫자 성장만이 아니다)하도록 기여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네째, 교회의 '성장'은 사랑과 협력의 **풍토에서만**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교인들 상호간의 「팀웍」이 잘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체적 생명, 즉 개개인의 영혼 구원에 집중되어 있는 감이 있다. 그리고 교회 성장을 논하긴 해도 숫자성장을 말할 뿐 생명의 집합체적 차원의 관점은 없는 것 같다.

한국교회는 일반사회의 조직구조를 답고 있다. 일반교인들이 문제결정(decision-making)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풍토도 매우 경쟁적이다.

그 한가지 실례를 소개하면,

필자가 일부 교회들에서 보고 느낀 점들이다. 서리 집사가 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수 집사가 되는 데, 모든 서리 집사님이 일제히 안수 집사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 장로님이 되는 숫자는 더욱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함께 안수 받은 집사님들 중 장로직에서 탈락된 집사님들의 신경이 다른 방향으로 쏠리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당

회나 교역자에게 불만을 적지 않게 나타내는 경우도 눈에 띄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 이야기는 이만큼 하기로 하자. 필자가 지적하려는 것은 교회 조직구조가 일반 기업체의 조직구조를 답고 있으며 오늘의 교회는 은연중 계급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체의 의사정책 결정은 중역들이 하고 사장의 결제를 받아 실시된다. 그래서 하급 직원들은 그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 교회의 의사결정은 당회서 처리되기도 하고, 아예 목사님이 혼자 처리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만 끝나지 않는다. 당회나 제직회가 논하는 것은 교회의 집합체적 차원의 생명의 성장과 관련된 문제를 논하지 않고 일종의 기구(機構)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를 유지하기 위한 의논과 결정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문 성경에서는 교인들은 교회성장(이 경우 숫자 성장이 아니다)에 기여하기 위해 전교인이 은사활용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오늘의 일부 교회는 교인들의 은사활용이 거의 눈에 띄이지 않고 있다. 오늘의 대다수 교회의 당회나 제직회의 기능은 필자가 아는 한 은사활용이라 할 수 없다.

필자는 교인들이나 신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가끔 이렇게 묻는다. “혹시 고독감을 느끼시지 않습니까?”라고, 교인들의 대답은 대개 비슷하다. 오늘의 교인들은 고독하다. 그들의 고독감을 교회의 조직과 경쟁적 풍토가 부채질하고 있다. 일반사회는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지 몰라도 교회는 다르다. 교회는 서로 협력하고 팀웍이 잘 이루어져야 성장한다. 그래야 외롭지 않게 된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게 되기 때문이다. (롬 12:15).

교회의 경쟁적 풍토는 일부 교회의 조직구조가 성서적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오늘의 교회조직은 일 위주로 적용되고 있고 교인들의 관계에 대해선 무관심한 것 같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엡 2:19) 하나님의 집 식구들이다. 교회가 일 때문에 불화가 있어서는 곤란하다. 일 때문에 다투려면 차라리 그 일을 다음으로 미루더라도 가족들간의 화목을 더 귀중히 여겨야 한다. 그런데 경쟁적 풍토에서 일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인들 간의 관계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다. 그러면 교인들 간의 상호관계와 일의 관계는 어떠한가?

예전때, 일만 강조하는 나머지 관계를 거의 무시하는 단체가 있다. 병영이 그런 곳이 아닐까 한다. 군대는 자기 할 일 잘 하고 전시에 싸움 잘 하면 된다. 군인들 간의 관계도 일을 위해 존재한다. 일 못하고 싸움에 늘 패하는 군인들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엡 2:19) 하나님의 집 식구들이다. 교회가 일 때문에 불화가 있어서는 곤란하다. 일 때문에 다투려면 차라리 그 일을 다음으로 미루더라도 가족들간의 화목을 더 귀중히 여겨야 한다. 그런데 경쟁적 풍토에서 일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허다하다.

반면, 일은 거의 무시하고 관계만 중요시하는 단체도 있다. 사교클럽이 그런 곳이다. 사교클럽에선 구성원들간의 사교만 잘 되면 그만이지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있더라도 거의 무시될 정도이다.

교회는 군대식이 되어서도 곤란하고, 사교클럽식이 되어서도 곤란하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군대식 체제를 답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목사님 한 사람이 지시하면 명령일하에 움직여야 하는 교회도 허다하고 그러다 보면 교인들의 인격적 관계는 거의 무시되어 간다.

일부 교회가 냉정한 원인은 교회가 제도화 됨에 따라 교인들의 관계가 조직적, 비인격적(impersonal) 관계체제로 운영되는 데도 있다. 이는 많은 경우에 교회 지도자 스타일과도 관계가 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 대해 열려하지 않았다. 그들이 “서로 전하는 자”임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롬 15:14) 교인들이 마음 열어 공유(sharing)하여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는 교육구조를 설정, 실시해야 한다. 개척교회가 대체로 은혜로운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있지만 조직 위주가 아니라 사람 위주이기 때문이 아닐까?

다음호에서는 교회 지도자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한다. 지도자 역할에 따라 교회의 성장과 풍토가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계속)

칼빈주의 신관



김 하 진 목사

(6지구 심방담당·성가부 지도)

1. 하나님의 주권사상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핵심적인 사상이며 교리이다. 이 교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칼빈과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은 탁월하시며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무엇이나 이해하지 못하며 인간이 그 생을 영원히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로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기동하며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찾는다.

1)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 인식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우선 자신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자신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되며 또 성립된다는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은 인간이 알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철학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을 알 수 없다면 인간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또한 종교도 필요없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 지식은 단지 공

허한 이론적 사색이 아니며 두뇌에 떠돌아다니는 막연한 사상도 아니다. 우리가 받기만 하면 결실하여 열매를 맺는 지식이다"(기독교강요 1권 5장 9절).

이에 대하여 월필드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가 누구시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각 사람의 직관으로 알려져 있다. 죄로 어두워진 사람도 마찬가지다"고 하였다. 이러한 지식은 자연과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로 더욱 확실해진다.

그런데 자연과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파울에 의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지각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으므로 좀 더 명백한 계시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임한 말씀들을 주셨다. 칼빈은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영감되었으며 잘못이 없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칼빈주의 인식론의 골자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없이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칼빈주의 신학자 코벨리우스 반틸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자연계시만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했는가? 아니면 특별계시가 있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하여 특별

계시가 있었다고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타락하기 전의 아담도 특별계시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했다면 타락한 인간이야 더 말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인식)할 수 있을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요14:6; 마11:27 참조) 부루너는 자연신학만으로 신인식을 인정하나 칼빈주의는 부정한다. 칼빈주의에서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내적조명으로만 알 수 있다고 한다. (고전 4:6; 2:10-16; 12:3 참조).

이와같이 칼빈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직관, 자연, 성경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시를 섭취해야 할 인간은 죄로 어두워져 있어서 영혼의 수정 없이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고 영혼을 밝히고 신령한 것을 분별하는 눈을 가지도록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성령은 객관적 계시를 받도록 준비시키신다고 하겠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를 만날 때 사람은 하나님에게 대하여 무엇을 아는가 하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알 수 있음을 부인한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본질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의 신성은 전적으로 인간의 감각에게 만나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기독교강요 1권 5장 1절)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에서는 하나님의 본질을 알려고 하는 욕망은 잘못이라고 한다. 그것은 쓸데없는 것이고 불경건한 것이다. 그는 또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에 그의 본질을 탐색하려는 욕망으로 해서는 안된다. 하나님은 연

구의 대상이 아니고 예배의 대상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있어서 그의 일들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 그는 그의 일들로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우리에게 자신을 익숙히 알려 주시며 또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에게 그 자신과 교통케 하여 주신다”(기독교강요 1권 5장 8절).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은 그가 우리에게 대하여 어떠한 관계로 계시는 분이신지를 아는 이상 더 나아가지 못한다. 그의 본질의 완전성은 우리를 훨씬 초월해 있으므로 우리는 그의 본질을 알려고 할 것이 없다.

가끔 반력자들은 칼빈주의가 너무나 하나님의 탁월성만 강조하여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도록만 가르친다고 비난한다. 여기에 대하여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두려움에서 시작되나 차차 그 지식이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어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평화로 충만케 된다고 하였다.

2)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하여 되어진다는 사실을 칼빈의 사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영원, 영원 전부터 그 자신의 지혜를 그가 하고자 한 바를 작정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그 자신이 능력으로 그가 작정하신 바를 실행하시는 만물의 중재자이시요, 통치자이시다. 그러기에 하늘과 땅과 무생물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생각과 뜻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통치되어 그들은 그들의 정해진 목적으로 정확하게 인도된다”고 했다(기독교강요 1권 16장 8절) 따라서 어떤 것도 우연하게 우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와같이 하

나님의 의지는 만물의 최고의 의지이다. 왜냐하면 어떤 것도 그의 명령이나 허용 없이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은 외적행위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내적성정까지도 지배하시며 또한 하나님은 그가 작정하신 모든 것들을 인간의 손으로 행하시되 반드시 먼저 인간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행위를 유발시키는 바로 그의 의지를 작동하신다”(Henry Cole; Calvin's Calvinism, London, 1927).

3) 하나님의 전능과 주권

또한 “하나님의 전능은 헛되고, 나태한 잠재력(potency)이 아니고, 성질이 다른 모든 개별 동작에 항상 작용하는 기능(agency)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없이는 한방울의 빗방울도 떨어지지 않고 한점의 바람도 불지 않는다. (기독교강요 1권 16장 7절) 그러므로 기독교에서는 우연이나 요행이란 있을 수가 없다. 세상의 제반사는 흔히 그것들의 질서, 이유, 목적, 그리고 필연이 하나님의 계획안에 숨겨져 있어서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므로 인간에게 있어서는 우연한 것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칼빈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굳게 붙잡는다.

2. 삼위일체

칼빈주의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심없이 믿는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성경이 이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성경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말이 전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삼위일체론을 말하고 있으며 이진리를 부인할때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없

는 것이 많다. 언제나 인간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성부)이 말씀(성자)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신(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하였다.(창 1:1-3 참조).

신약에서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도 성자 예수님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같이 역사하셨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할 때에 마리아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라고 대답했다. 이때 천사가 “성령(성신)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성부)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성자)이라 일컬으리라”고 하셨다.(눅 1:26-35 참조) 이같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함께 역사하셨다.

그리고 구속사업이 완성되는 신천신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끝을 맺는다.

계시록 22:1에 보면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성부)과 및 어린양(성자)의 보좌로부터 나서 흐르는데 성령(성신)은 목마른 자를 오라고 하신다.

또한 성자가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기 전에도 여러가지 모양으로 역사하신 것을 알 수 있다. 이사야 48:16에 보면 “주 여호와(성부)께서 나(성자)와 그 신(성령)을 보내셨느니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마 3:16-17 참조) 그 밖에도 여러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

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다. (마 11 : 제; 28 : 19; 요 14 : 26 : 16 : 13 - 14 참조).

사도들도 삼위일체 교리를 증거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고전 12 : 4 - 6에서 “은사는 여러가지나 성령(성신)은 같고 직임은 여러가지나 주(성자)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성부)은 같으니”라고 했다. (그밖에 엡 2 : 8; 4 : 4 - 6 참조) 특히 엡 1 : 3 - 14까지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역사를 성취하시는데 ① 성부 하나님이 여택하시고(3 - 5), ② 성자 하나님이 위하여 대속의 죽

음을 죽으시고(7), ③ 성령 하나님이 인치셨다(13)고 하였다. 이와같이 구원에 있어서 세단계의 역사에 대하여 베드로와 요한도 증거했다. (벧전 1 : 2; 요일 5 : 6 - 8)

그리고 칼빈주의 신학자 월필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삼위일체 교리의 근본적인 증거이다. 그것이 어디서 기원을 가지거나 또는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육체에서 나타내신 것이고 성령은 신령한 인격적 존재이며 이런 사실들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바른 증거이다.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환상이 아니고 전체의 증거이며 또한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령의 인격을 보여주고 있다”.

텔리취는 말하기를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은 철학적 추리의 산물이 아니고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계시의 사건이다”고 하였다.

사도 바울의 축도문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결론이라 하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후 13 : 13).

＊ 전성령 감동 ＊

풍성한 삶

김 중 주

교회밖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나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과연 어디로 가는가를 모르는 불행한 부류들이다. 이들도 불쌍하지만 주님을 알고 교회 출석하고 충성하며 열심을 내면서도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생활(요 10 : 10)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불쌍한 사람들인지 모른다.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또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약속하셨는데 왜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빈곤 속에서 허덕이며 무진장한 영적자원을 활용하지 못할까? 빌브라이트(Bill Blight)나 빌리그래함(Billy Graham) 같은 분들도 교인들의 80% 이상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왜 그럴까? !! 무지와 훈련되지 못한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풍성한 삶과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하루의 첫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루의 첫시간을 자기와 교제하는 밀월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신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메모하며 그를

찬양하며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시간으로 보내기를 원하고 계신다.

또한 하루의 생활중에 나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우리의 삶의 전부를 산재사로 드리는 유일한 길은 (롬 12 : 1-2)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일이다. 주님께셔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눅 6 : 4,5)하셨다. 심리학의 통계에 의하면 인간행동의 75%는 무의식중에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의 사상과 언어와 태도가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 (수 1 : 8)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공,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행사가 다 형통할 수 밖에 없다(시 1 : 3-4) 말씀의 암송은 하나님의 명령이다(신 6 : 6) 그러나 경건의 시간과 말씀의 암송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랜 훈련이 요구된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기 때문이다.

권찰이 갖추어야 할 일(3)

- 태신자 육성의 중책을 진 일군의 자세 -

이번 달은 총동원 전도로 인해 많은 태신자를 얻었으므로 이 태신자를 육성 관리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총동원 전도로 많은 태신자를 얻게 되니 총현의 일군들에게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수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사님들은 태신자를 육성하는데 있어 우선 가까운 거리에 사는 태신자들을 한 권찰에게 5명 정도씩 묶어 책임지고 육성케 하여야 되겠고 권찰은 매주 1회 이상 태신자를 찾아 심방하며 선도하는데 힘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장현황을 권사님에게 보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태신자 육성을 위해 수고할 일군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이 문제에 있어서 기도하는 중에 생각을 떠오르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태신자를 위해 분주히 뛰어야 할 일군들이 대부분 여자분들이다. 여자분들은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로 태신자를 어머니가 아기를 낳아 키우는 것과 같이 전도해 낳아 육성하여 키우는 것이니 모든 일군들이 모두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한편 다행스럽다.

1. 어린 아이를 뱃속에 품었을 때의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

이제 전도하여 얻은 새신자를 위해 모든 일군은 어린 아이를 뱃속에 품었을 때와 같이 되어야 한다. 아기엄마는 마음을 아름답게 가지고 몸도 깨끗하게 하며 조심성있게 움직였고 음식도 가려 먹었듯이 이와같은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새 교인 앞에서는 사랑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말도 유순하고 진실 되게 하고 행동은 겸손하고 온유하여야 한다.

2. 어린 아이를 낳았을 때의 어머니와 같은 자세여야 한다.

전도하여 얻은 새신자를 이제의 어린 아기를 낳은 어머니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키워야 한다. 어린 아기에게 너무 찬 것, 뜨거운 것을 주지 않고 음식의 양이나 심지어 때를 따라 옷도 가려 입혀 몸을 보호하듯이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영육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하며 적당하게 새신자가 마음속에 간직하리만큼 알기 쉽게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어린 아기에게 적당한 운

동으로 인한 건강한 발육성장을 피하듯이 새신자로 하여금 말씀을 실천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교회에 나오게 하며 기도도 하게 하며 찬송하게 하고 회개할 줄 알게 하며 봉사와 헌금도 할 수 있게 하고 선한 일도 하게 해야 한다.

3. 어린 아이가 성년이 될 때에도 어머니가 가지는 마음이어야 한다.

어머니는 어린 아이가 자라 성년이 되어도 몸가짐과 마음가짐, 옷차림과 생활하는 모든 것을 살펴주어 한사람의 떳떳한 성년으로 키운다. 새신자가 이제의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일군들은 종종 가르치고 위해 기도해주며 어려운 일 있을 때 위해주고 돌보아 주어야 한다.

총현의 일군들이여, 태신자를 육성하는데 어머니가 아기를 키우는 이치를 잊지 말고 그 이치대로 추로하면 새신자는 건강하게 잘 자랄 것이다. 이 일을 성실하게 잘하여 하나님께 영광돌리고 이 민족에게 선한 일 많이 하며 하나님과 사람앞에 높임을 받으며 세계 민족 앞에서는 제사장의 사명 다하는 복된 일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 원 남 목사 (심방위원회 위원장)

* 카-드 관리법

금번 총전도운동에서 옮겨 받은 환영카-드(황색)를 구역에서 사용하고 이 환영을 받은 태신자가 구역원들의 선도를 한 교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교인이 됐을때 황색 환영카-드에 태신자를 백색, 등록카-드로 옮겨 담임교역자로 심방 육성 관리케 한다.

황색 환영카-드가 새로 작성한 등록카-드와 함께 담임교역자에게 전해지면 담임교역자는 등록카-드만을 사용하고 황색환영카-드는 전도부에 넘겨준다.

해외선교사 · 선교지 소식

인도네시아—서 만 수 선교사

선교사님은 지난 5월 6일 오후 7시에 김포 도착 하시고 본교회를 방문 인사하시는데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보내셨다.

① 5월 6일 오후 7시 김포공항도착 충현교회 방문 및 인사 ② 5월 7일 새성전 현장방문 및 인사 ③ 자카르타 한인교회 성도와 회합 ④ 5월 10일 주일오전선교(충현교회 1-4부) 주일오후선교(영안교회) ⑤ 5월 10일 선교실무자회의, 선교 주교생들과 간담회 ⑥ 5월 12일-14일 산업시찰 및 부산방문 ⑦ 5월 15일-18일 부산체류 ⑧ 5월 17일 주일오전선교(부산수영로교회) 주일오후선교(부산대청교회) ⑨ 5월 19일 상경체류 ⑩ 5월 26일 오전 9시 10분 김포에서 현지로 출국하심.

기도제목

1. 선교사들의 입국이 막히고 있는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
2. 서선교사님의 선교사역의 열매 및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

홍 콩-홍 중 만 선교사

1. 한인교회

① 홍콩한인교회 건축위원회에서 홍콩불 300만불 예산으로 기금조성을 결정.

② 3 사관학교 성경구입보조로 홍콩 \$ 3,000불 보조기로 결정.

③ 마카오 선교비 4,000\$, 성경영어교재출판비 보조 1,400\$ 지급.

④ 고신(高神) 전국청장년회장 일행 배방.

⑤ 미국 뉴욕 빌립보교회선교부에서 5월 200\$ 중국 선교위해 보낸다는 연락과 함께 3개월분 600\$ 수표 접수.

2. 중공선교

① 중공에 성경, 찬송, 테이프등 계속 발송

② 기타 서신들을 중공에서 계속 접수함.

3. 선교사님 동정

지난 5월 9일 선교사님의 사모님께서 일시 귀국 하여 체류중.

기도제목

1. 중공에 있는 성도들이 요구하고 있는 신앙서

적들(성경주석, 성경사전, 강해서, 설교집)의 공급이 잘 되도록.

2. 인편에 주로 의존케 되는 성경전달 위해

애 굽-이 준 교 선교사

한인교회는 매월 하루를 철야기도회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으며 계속 선교지 복음화를 카이로 한인교회와 주애굽한인선교부를 통해 노력하고 있음.



〈카이로 한인교회 야외예배

이스마일리아(수에즈 운하변)〉

기도제목

선교사님 및 가족의 건강과 선교사역의 승리를 위해.

서 독-육 호 기 선교사

선교사님은 지난 5월 8일 오후 9시에 김포 도착 하여 다음과 같은 일정을 보내시고 선교지로 출발하셨습니다.

- ① 5월 8일 오후 9시 김포도착, 갈현동 자택방문
- ② 5월 9일 새성전건축현장 방문
- ③ 5월 10일 주일오전예배선교(수원 창훈대교회) 주일오후 예배 설교(대성교회)
- ④ 5월 11일 선교실무회의
- ⑤ 5월 12-14일 산업시찰
- ⑥ 5월 13일 반석교회선교
- ⑦ 5월 17일 주일오전예배선교(충현교회 1-4부) 주일 오후 예배선교(수원제일교회)
- ⑧ 5월 18일-20일 평택 제일교회 부흥회
- ⑨ 5월 21-22일 대전남부교회 설교
- ⑩ 5월 22-24일 부산대청교회, 초량교회선교
- ⑪ 5월 25일

월 26일 기독교신보사, 총회방문 ⑫ 5월 27일 연회교회 설교 ⑬ 5월 28일 수원신학교특강, 수원노회주최 환영회 ⑭ 5월 29일 주일학교선교부 특강 ⑮ 5월 31일 주일오전에배설교(한델루야교회) 주일오후에배설교(세광교회) ⑯ 6월 1일 출국하심.

기도제목

선교사님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호 주-김 태 현 선교사

기도제목

- ① 영주권을 취득하신 선교사님의 선교활동이 더욱 성공적이 되도록
- ② 선교사님의 건강과 가족의 평안을 위해

아르헨티나-백 성 룡 선교사

1. 한인교회현황

- ① 3월 28일 야외예배 ② 4월 7일-18일까지 대심방실시 총 153세대(중전 140세대) 세례교인 352명(전 306명) 총제적 510명(전 463명).
- ③ 4월 12일 성례식거행, 수찬자 267명(전250명)
- ④ 4월19일 부활절연합예배드림

2. 한국인 학교 개교

우리말 공부 중심으로 매 토요일마다 모임, 본국 정부 인정의 한국인 유일의 교육기관임.

3. 칠레연합교회 집회인도 5월 26일-29일 까지 선교비도 지급.

기도제목

- ① 선교사님을 성령의 불담으로 보호하시기를
- ② 남미선교의 큰 터전이 되도록

파라과이-김 재 창 선교사

기도제목

1. 선교사님의 간구하는 기도제목들이 속히 응답되도록.
2. 자녀들의 축복 특히 진학하는 일이 잘 되도록.

칠 레-유 재 일 선교사

- ① 3월 24일 칠레남단을 답사.
- ② 계속 언어교육에 열중하고 계심.

- ③ 4월 19일 춘계성례식(학습 7명, 세례 2명)
- ④ 4월 25일 원주민 양로원 방문, 60-90세 50분을 위로.
- ⑤ 한인교회정관을 제직회에서 통과시킴.
명칭: 대만에수교장로회 칠레연합교회.

기도제목

1. 속히 독립된 성전을 갖도록.

인 도-엘리아 젤간 선교사

① 본부에서 김영휘강도사님과 최석주장로님 일행이 내방할 경우 선교사님택에서 숙식하도록 준비중이며 카쉬미르복음주의 동지회(KEF)본부도 방문 안내할 예정임.

② 선교사역을 위해서 방을 빌린 것처럼 반에이커 정도의 대지를 미화 5,000\$ 정도로 구입케 되기를 기도하고 있음. 또 수루골짜기 여행에 적합한 차량이 구입되도록 기도중임.

기도제목

1. 선교사님의 기도제목이 응답되도록

일 본-유 병 세 평신도선교사

기도제목

1. 유선교사님의 새로운 선교지의 선교사역이 효과적이 되도록.
2. 이권사님의 건강을 위해.

서 독-박 용 삼 평신도선교사

1. 마지막단계의 논문서술중이고 계획대로 잘 진행됨.
2. 본부선교부를 위해서 진젠도르프의 선교관계 자료를 보내음. (Zinzendorf, The Ecumenical Pioneer 등).

기도제목

선교사님의 논문통과 및 선교사역 위해

본부소식-해외복음선교회

1. 본회 회장 최석주장로님과 지도이신 김영휘강도사님 일행의 선교지순방일정은 7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로 다소 수정됨.

4, 5 월중 새 교우 명단

- 새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 1 지구

장동구역 이대봉
상계구역 김승미
상계1구역 박영근
우이구역 전숙자
동소문구역 김효명
미아4구역 전경자
상계1구역 최윤미
길음1구역 한혜연
미아7구역 오상재
종암1구역 김창수
장위2구역 김현숙
광희2구역 김화현
광희2구역 주애숙
상계1구역 안영호
정능1구역 이경환
광희2구역 서민자
번동구역 조순애
미아4구역 고흥규
동소문구역 김정자
미아8구역 조경희
상계1구역 오진영
미아2구역 김원호
미아3구역 조춘자
미아5구역 장재순
수유1구역 박영자
성북구역 양순옥
정능1구역 이종윤
정랑리구역 정태승
광희2구역 박순애
장동1구역 이정용
장위1구역 남용승
용두구역 황명옥
용두구역 우경중
미아5구역 김길진
미아4구역 광명순
수유2구역 최명화

● 2 지구

장안구역 김단아
망우1구역 최동철
휘경구역 이기순
군자구역 유영웅
석관구역 심화연
마장구역 채연순
교문리구역 오은미
이문2구역 박화호
면목5구역 최미향
답십리구역 유혜련
답십리구역 김정윤
면목2구역 선순례
면목2구역 박복희
전호1구역 오동천
망우1구역 김수복
보광2구역 지대식
면목3구역 김성옥
면목3구역 변용근
구의1구역 손경애
면목2구역 안성희
행당1구역 우규환
면목1구역 이준현
송정구역 이순규
홍익구역 이순범
군자구역 이숙형
풍납구역 장소봉
삼일구역 장재호

● 3 지구

신당2구역 라영관
화양2구역 조승준
장충2구역 이우주
성수1구역 유순이
자양3구역 윤춘자
자양2구역 남영환
화양2구역 이인제

쌍림1구역 조숙래
시영2구역 황재화
장충3구역 김철하
청구구역 이장순
쌍림2구역 박훈규
쌍림2구역 구진희
청구구역 함남순
장충6구역 이옥희
광희1구역 주환상
쌍림3구역 박성구
신당2구역 김달순
잠실1-1구역 김복순
광희1구역 백찬숙

● 4 지구

정당3구역 주철
보광1구역 정영호
진삼구역 김동신
보광2구역 이해경
목정2구역 김재호
금호2구역 류지식
삼성구역 김정하
역삼구역 김서연
보광2구역 이계석
유선애
신사2구역 이정미
정당1구역 김정훈
정실구역 엄광희
금호3구역 박영분
은마구역 김정순
삼성구역 전영희
보광1구역 황완옥
역삼구역 이지은
용봉구역 오덕수
한남1구역 이형대
이태원구역 김정희
금호2구역 유춘성

선정1구역 이병찬
강남구역 노희환
강남구역 이미화
선정1구역 송기섭
금호3구역 김경애
옥수2구역 이인희
삼성구역 황경래
용봉구역 이만경

● 5 지구

반포5구역 김성무
반포2구역 이홍자
시흥구역 정윤순
신림3구역 이윤실
방배2구역 김선석
신림3구역 최용희
필동2구역 김진례
남대문구역 김경옥
사당1구역 이석영
사당1구역 신노로
필동3구역 윤은숙
후암1구역 조병일
봉천2구역 이명순
대방1구역 김명호
서초1구역 장준호
사당1구역 김종길
시흥구역 윤양후
독산구역 장동식
봉천3구역 안영준
신림1구역 김현숙
시흥구역 이종환
필동7구역 강홍일
신림3구역 이정철
방배2구역 장봉덕
상도2구역 추남태
봉천3구역 한철
반포3구역 한명애

봉천3구역 이성심
시흥구역 류현
방배2구역 최광자
필동7구역 양정옥
사당2구역 공금령
상도1구역 이정순
서초1구역 전갑순
필동2구역 박복순

● 6 지구

화곡2구역 이희천
인전2구역 김양희
화원구역 서정수
신촌구역 박미옥
회현구역 최수철
영리구역 김경화
대흥구역 양금주
인현2구역 염상수
연희구역 김용구
오류구역 임재현
용문구역 정소철
용문구역 강대빈
진양구역 정운철
화곡구역 권영주
화곡4구역 권희순
화곡4구역 박애숙
신정구역 황영순
영리구역 김인기
화원구역 최낙용
부전1구역 서은자
대흥구역 홍세익
도화구역 김도훈
도화구역 이진호
서강구역 이경애
인현2구역 이정화
인현2구역 신정여
진양구역 강수정
화원구역 김복순

망원2구역 한영일
도화구역 최지문
망원1구역 이성희
연희구역 이규철
화곡3구역 신부근
화곡1구역 김기선
화곡1구역 이상순
화곡3구역 김홍기
인현3구역 김경화

● 7 지구

창신2구역 신선희
창신1구역 이순자
서대2구역 이순애
역촌2구역 오세옥
오장구역 반은주
남가좌구역 홍상봉
남가좌구역 우상달
동송구역 박차화
을지2구역 이정숙
갈현구역 최미옥
충무2구역 장옥분
오장구역 이옥임
갈현구역 서남식
을지2구역 장만순
남가좌구역 황인각
명륜1구역 부정순
명륜2구역 이진국
조동1구역 김광자
오장구역 문광호
창신2구역 김경자
창신2구역 조은희
응암1구역 김도홍
구파발구역 양한준
송인1구역 한영환
조동1구역 김동선
홍제구역 김갑춘
연건구역 송경자

* 축하합니다. (4·5월 중 결혼)

- 백영준군(백일목씨 김희옥권사 아들)과 유기영양(이춘구역) 4월9일
- 김현숙양(상도구역) 4월11일
- 이승계군(이재거집사 구명신전도사 아들)과 이정현양(유년부반주) 4월28일
- 하혜란양(하영준씨 신일순씨 딸) 4월29일
- 조보연군(조남석씨 홍재옥집사 아들)과 김영희양(안양구역) 4월30일

- 지은영양(삼선구역) 5월2일
- 김하진군과 김미경양 5월4일
- 심명미양(심정우집사 김원혜권사 딸) 5월5일
- 남용철군(남은관씨 황성례집사 아들) 5월5일
- 마희자양(마성락장로 동생) 5월5일
- 박영숙양(남은주집사 딸 김순철권사 손녀) 5월8일
- 박성학군(연지구역 점옥실씨 아들) 5월8일
- 신명철군(청년부회원) 5월9일

- 정성교군과 최인상양(이정자집사 딸) 5월9일
- 최현계군(최영남씨 김정옥집사 아들) 5월9일
- 이정구군(이동규장로 조카)과 한계태양 5월13일
- 황명길군(청년부부지도)과 박해영양(유치부교사) 5월16일
- 김영춘군(부원교회 집사)과 유옥련양(주교교사) 5월18일
- 김동엽군(서대문구역)과 한성실양(주교교사) 5월19일
- 이상재군(미아7구역)과 정연희양(유치부지도) 5월20일
- 유홍곤군(신원택집사 아들) 5월20일
- 박종배군(김옥순집사 아들) 5월23일
- 전경일군(전남일집사 동생)과 김옥례양(역촌2구역) 5월23일
- 김원규군(청년부 회원)과 김옥영양(제이성가대원) 5월23일

- 이미수양(고성임집사 딸) 5월23일
- 남세현군(석관구역)과 이점애양(박의법권사 딸) 5월26일
- 강기봉군(강병록집사 고임생집사 아들) 5월29일
- 정창원군(청년부회원) 5월30일
- 전은실양(전희문장로 딸) 5월30일
- 김원석군(김순옥전도사 동생) 5월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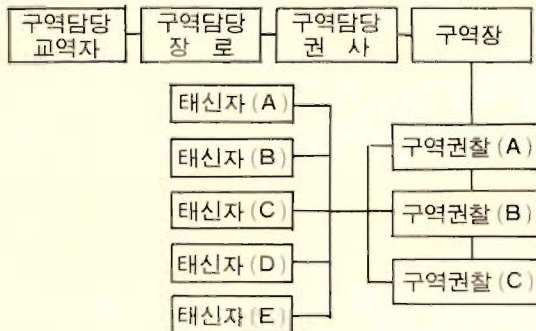
* 위로드립니다. (4·5월 중 별세)

- 고신교권사(장미구역) 4월2일
- 최성하씨(청구구역 최하자집사 부친) 4월8일
- 최경원씨(화곡구역) 4월21일
- 이현모집사(청심구역) 5월4일
- 김병초집사(개봉구역) 5월5일
- 조효례집사 5월15일
- 채수남(청년회원송조판 모친) 5월18일

태신자육성을 위한 안내

심방위원회는 금번 총동원 전도로 얻어진 태신자를 하기 방안으로 육성 관리한다.

1. 태신자 육성관리를 위한 조직



2. 태신자 육성관리의 직무

1) 확장분과 위원장은 태신자의 육성상황을 살펴 고 태신자를 위해 책임지고 일하는 직원들을 지도관리한다.

2) 구역담당장로 활동

구역담당장로는 구역공부시에 협력구역을 차례로

순방 참여하여 태신자의 동향과 육성형편을 엄밀히 살펴 선도한다.

3) 구역담당권사 활동

- ① 구역담당권사는 태신자육성과 관리에 중책을 지고 매주 1일 이상을 진력 수고한다.
- ② 구역담당권사는 매주 금요일 심방시 태신자의 카드를 가지고 태신자를 권찰과 같이 심방 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예배드리며 기도 하며 혹은 성도의 교제로 육성 지도한다.
- ③ 구역담당권사는 태신자를 위한 권찰활동과 태신자의 성장형편을 보고 받고 담당교역자에게 수시로 보고한다.

4) 구역장 활동

- ① 구역장은 구역공부를 가르칠 때 태신자육성에 역점을 두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힘을 다한다.

5) 구역권찰 활동

- ① 구역권찰은 태신자 5명을 육성하는데 책임진다.
- ② 구역권찰은 매주 1회이상 태신자를 가급적 인도자와 같이 심방한다.
- ③ 구역권찰은 태신자 심방시 복음진리를 알기 쉽게 가르치며 교회집회나 구역공부 시간이나 장소를 가르쳐 주어 참여하도록 힘쓴다.
- ④ 구역권찰은 태신자의 심방여부와 자라나는 형편을 권사에게 보고한다.

장로, 전국유명교회 탐방

그곳 교역자·장로들과 대화

지난 6월3-6일까지 우리 교회의 시무장로 29명이 4 개조로 편성, 충남, 경남북, 전남북의 유명교회 20 여곳을 탐방했다.

이번 탐방의 목적은 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아 오늘에 이른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과 양적 성장을 직접 목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②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남다른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마지막 때의 한국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계신 줄로 믿고 선교 100주년을 바라보는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

에서 받은 사명이 무엇이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임을 발견하며 ③ 28년동안 충현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현교회의 위치를 재 확인하고 충현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발견하고 ④ 전국 유명교회 탐방을 통해 목회 전반에 대한 문제를 배우며 지금까지 충현교회의 목회와 행정을 재점검, 평가, 시정하여 새성전에 들어 갈 준비를 갖추며 ⑤ 기름 부음 받은 장로로서 어

떻게 하면 주신 사명을 보다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교회를 잘 받들고 섬길 수 있는 지에 대하여 개교회 장로들과 대화하며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충남에 1 곳, 대구에 4 곳, 부산 8 곳, 광주 3 곳, 전주 2 곳, 이리 1 곳, 군산 1 곳 모두 20곳의 전국교회를 탐방한 탐방단은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슬라이드와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 및 각종 서식 등을 전달하고 상호 질문을 통해 서로의 교회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탐방을 마치고 돌아 온 장로님들은 각 개교회에서 따뜻하게 맞아 준 것이 가장 인상 깊었고 서로의 대화를 통해 많은 점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다.

서만수·육호기 선교사

일정마치고 출국

주 인도네시아 선교사 서만수 목사와 주 서독 선교사 육호기 목사가 다녀갔다. 서만수 선교사는 5월 6-26일까지, 육호기 선교사는 5월 8일-6월 2일까지 체류하며 교회내외적으로 바쁜 일정 가운데 모든 업무를 마치고 출국했다.

서만수 선교사는 지난 78년 4월에 충현선교대회 참석차 귀국한 후 3년만에 육호기 선교사는 1976년 12월에 파송된 후 처음으로 귀국하여 여러 모양으로 각 선교지의 현황을 들려 주시며 앞으로 계획동을 의논하는 시간들을 가졌다.

두 분 선교사는 체류기간동안 새성전 현장을 방문하며 지방에 가서 설교를 담당하고 5월 10일(서만수 선교사), 5월 17일(육호기선교사)에는 충현교회에서 주일낮 1,2,3,4부 설교를 하시었다. 또한 5월 12-14일에는 산업시찰을 하시며 그동안 나라안의 형편을 살피기도 했다.

바쁜 일정 가운데도 선교부 주일학교 학생들과 대화하는 시간들을 가졌다.

인도네시아어 신약발간 지원

한편 두 분 선교사는 5월 25일에는 산업전도회 임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간담회를 가졌고 이보다 앞서 5월 11일에는 해외복음 선교회 실행위원들과 함께 선교지의 사정과 앞으로의 전망등에 관한 실무회의를 가졌다.

이 실무자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선교사역으로 인도네시아어 신약성경출판을 지원키로 했고 또한 10년이 상 홀로 선교사역에 힘쓰는 고충을 덜기 위해 동역자를 선발하여 보내는 문제를 협의, 현재 인도네시아가 선교사 입국을 허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선거가 내년 5월이므로 국내

정치 사정에 따라 인도네시아 현재 선교에 대단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보다 집중적이며 깊은 지원과 기도의 후원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서독은 파송후 처음 귀국하여 그동안의 상황들을 보다 깊게 이해하며 폭넓은 대화를 통해 서독 선교현지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금년 서독에서 8월 9-14일까지 열리는 유럽전도대회에 당회장 김창인 목사를 주강사로 하기로 정했다. 또한 현지에 선교훈련원 설립문제를 협의하기도 했다.

서독은 현지의 한인교회들이 머지않아 자립이 예상되므로 이를 중심으로 유럽에 머물러 있는 한인성도들의 영적지도의 중심지로, 또한 현지인 선교의 선교센터로 기대가 된다.

두 분 선교사는 체류기간동안 온 교회가 따뜻하게 돌보아준데 대해 무척 고맙다고 말씀하시며 계속적인 기도와 지원을 부탁하셨다.

농어촌교회

교역자·평신도 초청훈련

교역자/1981. 6. 29-7. 3

평신도/1981. 7. 6-7. 10

제7회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훈련과 제10회 농어촌교회 평신도 초청훈련이 오는 6월29일-7월3일 까지, 7월6일-10일까지 각각 충현기도원에서 열린다.

농어촌 교회 교역자의 목회 정보교환 및 목회훈련을 위한 훈련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본 초청훈련은 교역자가 7회, 평신도가 10회로 접어들면서 차츰 안정된 속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금년에는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오전에 2강좌의 성경강해와 오후에 특강, 저녁에 부흥회로 시간을 구성했다.

충청남북도·강원도 교회가 대상

금년도 6월29일(월)부터 5일간 충현기도원에서 열리게 되는 제7회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훈련의 대상은 충청남북도 및 강원도지역의 교역자로(100명 내외가 될 것이다. 충현성경연구원장이 주관하는 초청훈련은 부흥회 및 성경강해를 김진택목사(한성교회 담임목사)가 담당하고 매일 오후에 4시간에 걸친 특강은 ① 심방의 실제와 교회성장을 정삼우목사(후암제일교회 담임목사)가, ② 교리와 교회 성장을 안봉호교수(총신대, 아시아연합신학원교수)가, ③ 성경공부와 교회성장을 배도선선교사(성서 유니온 대표)가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의 특징은 많은 과목보다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의 과목으로 계획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필요한 내용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기에 더욱 기대가 크다고 본다.

1972년 주교교사 초청훈련에서

우리 교회가 이처럼 농어촌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초청훈련을 시작한 것은 1972년부터였다.

농어촌에 지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교회에 건축비용을 보조해 주며, 여름마다 농어촌교회에 가서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를 지도해 주고 하던 우리 교회가 농어촌교회의 근본문제를 지도자의 빈곤으로 보고 1972년 7월에 처음으로 농어촌교회 교사초청훈

련을 실시하게 된 것이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농어촌교회를 근본적으로 부흥시켜 보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농어촌교회의 교사를 초청하던 것을 발전시켜 1975년에는 농어촌교회의 교역자를 초청하게 되었다. 참가자의 식비는 물론 왕복여비까지 우리교회에서 부담하게 되었고 특별히 교역자만을 초청하여 훈련함으로써 강의 내용을 보다 적합하게 편성할 수 있었고 목회자만을 상대로 하는 집중적인 훈련을 할 수 있었다.

이 초청훈련은 해가 갈수록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고 우리 교회는 이런 초청훈련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고 또한 도시의 다른 큰 교회가 이런 일에 적극 참



(지난해 농어촌교역자 초청훈련에서)

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1976년부터는 그 대상지역을 충남 대전 이북지방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는 그 이남은 그곳 지역의 큰 교회에서 담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이처럼 교역자와 평신도지도자를 초청하여 훈련하면서 교회는 농어촌전도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 곧 6월 중에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훈련을 실시하고, 7월에는 교역자가 초청받은 교회의 평신도지도자(주교 교사 및 제직)를 초청하여 훈련을 하고, 8월에는 교역자·평신도지도자가 훈련을 받은 교회 가운데 조금만 도와주면 자립을 할 수 있는 교회 약 10여곳을 선정하여 잘 훈련된 우리 교회의「농어촌전도대」를 파송하여 교회소재 지역을 복음의 물결로 휩싸는 3중적 효과를 노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농어촌교회 교역자·평신도초청훈련을 민족복음화의 차원에서 농어촌 교회의 발전에 가장 큰 저해 요소를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교회의 매년 여름행사를 시작하는 첫번째 행사로써 우리 모두가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동참해야 할 것이다.

청년부집회 2부로

성경공부는 평일에 모여

주일학교 청년부는 주일 출석인원이 200명을 넘게 되어 주일집회를 2부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처럼 주일집회를 2부제로 실시하게 된 것은 ① 현 장소에서 200명 이상 수용이 불가능하고 ② 분반공부의 인원이 많아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으며 ③ 회원관리 및 회원상호간의 교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일에는 강의만 하고 회원상호간의 친교 및 성경공부는 소그룹단위로 구성하여 평일로 옮겨 자유롭게 실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집회시간을 현재 오후 1시40분에서 4시30분까지를 1부는 1시30분에서 3시20분

(현 청년부실), 2부를 3시 30분에서 4시50분(편집실 2층)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청년부의 2부제 집회는 영아부, 유치부에 이어 세번째가 된다.

청년부 부감-손경수집사

교회는 그동안 공식중인 청년부 남자부감에 현재 원간중현편집위원이며 청년부교사로 수고하는 손경수집사를 임명했다.

이 손 전도사 사임

그동안 당회장실 총무로 수고하던 이 손 전도사가 개인사정으로 사임했다.

초등부 부지도

김의경 전도사

교회는 공식중인 초등부 부지도에 김의경전도사를 임명했다.

100 만원 성금

교회는 경산철도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북한선교합창단

6월 28일 찬양예배

교회는 6월 28일 저녁예배시 북한선교합창단을 초청, 특별찬양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이날 설교는 합창단 지도교역자인 이승근목사가 담당한다.

산업전도회

특수분과 모임 활발

의료분과 이어 섬유분과도

산업전도회는 지난 5월 22일 오후 7시 유년부실에서 산업전도회 섬유분과의 첫번째 모임을 가졌다.

산업전도회 회원 및 교회내의 섬유관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모인 섬유분과 첫번째 모임은 예배와 친교, 최석주 전도위원장의 모임 취지 설명 및 앞으로의 계획등의 시간을 가졌다.

각 상가의 효과적인 복음전도를 목적으로 모인 첫번째 모임에는 동대문, 종합, 방산, 청계, 평화, 남대문상가 및 제조업 및 무역업의 대표들이 모였다.

이날 모임에서 1981년도의 사업목표를 ① 상가별 총동원전도 ② 상가별 성경공부 ③ 상가별 교우 친교 ④ 상가별 상업 정보교류를 목표로 정하고 현재 각 상가별 매주 혹은 매월 1회 이상 모여 성경공부와 상가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바 이에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요망했다.



의료분과는 두번째 모임

한편 의료분과는 지난 5월 14일 오후 7시에 유치부실에서 두번째 모임을 갖고 1981년도의 사업목표로 ① 주일환자 간호 ② 직장 및 개척교회에 무료진료 ③ 의료자 상호간의 친교 등으로 정하고 지난 5월 21, 25일 양일간에 걸쳐 동신섬유(대표: 임광식장로) 및 한통정수기(대표: 정수균집사)를 찾아 무료진료를 실시하였다. 이날 무료진료는

미부과(홍중섭장로), 치과(엄필성집사), 내과(이갑재집사)부문의 치료를 실시했다.

무료진료를 원하는 기업체에서는 의료부장 홍중섭장로에게 연락하면 된다.

한편 산업전도회는 산업전도회원간의 친목과 각 기업체, 산업전도인구의 저변확대 등을 위해 매월 1일(주일인 경우는 2일) 오전 6시 30분에 유치부실에서 조찬기도회와 월례회를 갖고 있다.

1. 예배위원회

가. 성가부

① 임명

제 1 성가대	전광한	소프라노
제 2 성가대	최영미	소프라노
제 2 성가대	허춘자	알토
제 2 성가대	고연신	알토
제 2 성가대	옥인수	테너
제 2 성가대	오정근	베이스
제 2 성가대	강혜리	소프라노

② 퇴임

제 1 성가대	황유경	알토
제 2 성가대	김태임	소프라노
제 2 성가대	송양원	소프라노
제 2 성가대	김재순	소프라노
제 2 성가대	김정숙	소프라노
제 2 성가대	조순희	소프라노
제 2 성가대	박은미	소프라노

제 2 성가대	김영미	소프라노
제 2 성가대	강정자	알토
제 2 성가대	권석연	알토
제 2 성가대	김옥영	알토
제 2 성가대	장춘혜	알토
제 2 성가대	한승일	테너
제 2 성가대	이상범	테너
제 2 성가대	김남형	테너
제 2 성가대	곽영민	베이스
제 2 성가대	정중현	베이스
제 2 성가대	장홍기	베이스

유치부	정창규(남)	임시교사
유치부	김동균(남)	임시교사
유치부	김중곤(남)	임시교사
유치부	김애리(여)	임시교사
유치부	이해제(여)	임시교사
중등부	강영옥(여)	정교사
중등부	임양호(남)	임시교사
중등부	김준호(남)	임시교사
중등부	추정화(남)	임시교사
중등부	정승훈(남)	임시교사
중등부	최윤순(남)	임시교사

2. 교육위원회

가. 주일학교

① 임명

유치부	임재현(남)	임시교사
-----	--------	------

② 퇴임

고등부	장홍기(남)	정교사
고등부	송양원(여)	정교사
고등부	안현웅(남)	정교사
고등부	정덕오(남)	임시교사

각 종 통 계

1981. 5. 3 (매월 첫 주 기준)

충현기도원 안내

〈교통편〉

1. 교회 버스편

- 매 주일 저녁예배후
- 매 주 수요일예배후 9시에 교

회앞에서 출발

2. 시외버스편

• 마장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천·여주방면 완행버스를 (20분
간격) 타고 초월면사무소앞에서
하차

3. 시내버스편

• 66번, 57번, 239번을 타고
〈성남종합시장 앞에서 하차〉하여
광주행 31번 버스를 타고〈광주에
서 하차〉 광주에서 이천 방면행
완행버스를 타고 〈초월면사무소
앞(대쌍)〉에서 하차

(주소) 130-112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전화) 교환 101번을 거셔서

광주 초월14번」을 신청

구 분		남	여	계				
예	주일날	I 부	196	399	595	총세대수	3,955	
		II 부	448	1,009	1,467			
		III 부	457	905	1,362			
		IV 부	193	527	720			
		계	1,294	2,840	4,134			
배	주 일 저 녀	211	428	639	신	총수	남	3,684
	삼 일 저 녀	198	335	533			여	5,331
	어린이새신자부	33	43	76			계	9,015
주 일 학 교	영 아 부	185	137	322	급 별 교 인 현 황	세례 입교	남	1,986
	유 치 부	122	127	249			여	3,395
	유 년 부	212	219	431		계	5,371	
	초 등 부	227	210	437			유아 세례	남
	중 등 부	177	188	365		여		420
	고 등 부	129	160	289		계		932
	대 학 부	86	69	155		학습 교인		남
	청 년 부	77	118	195			여	410
	장 새 I 부	21	77	98		원입 교인	계	709
	장 새 II 부	15	46	61			남	897
장 년 부	32	264	296	여	1,106			
	노 년 부	37	120	157			계	2,003
	산 업 교 육 부	12	96	108				
	선 교 부	12	30	42				
	새 가 정 부	14	18	32				
	합 계	3,094	5,525	8,619				

6월의 행사

- 1 일 산업전도회 월례조찬기도회
- 3 - 6 일 장로 지방교회탐방
- 7 일 제직회, 재정위원회
- 12일 교회전체철야기도회
- 14일 남전도회월례회, 권사회월례회,
- 21일 여전도회월례회, 재정위원회, 출판국월례회
해외복음선교회실행위원회, 월간충현 6월호 발간
- 28일 구역권찰회, 전도위원회, 건축위원회
- 29-7월2일 제 7 회 농어촌교역자초청훈련

편집하고 나서

*...6.25를 맞으며 6.25를 생각하는 날을 마련하여 보았다. 김차생장로님이 6.25의 어려웠던 시절과 그 당시 한국교회의 자세를 돌이켜 보며 현재 우리의 상태등을 살펴 보는 귀한 글을 써 주셨다.

또한 홍중섭장로님이 6.25체험담을 생생하게 써 주셨다. 6.25가 이제 구세대의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서 남겨지고 있는 듯한 감이 있다. 오늘날 자라나는 세대는 6.25를 책으로 다 귀로 듣고 배우기에 그 현실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더구나 많은 경우엔 잊혀져 가고 있다. 이제 6.25를 겪은 세대보다 겪지 않은 세대가 숫 적으로 점점 더 많아짐에 대해 우리는 보다 더욱 6.25의 어려웠던 시절을 살펴 보며 현재와 앞으로

우리 생활의 자세를 살펴야 할 것이다. 특히나 크리스찬인 우리는 그런 어려움속에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난 달 전교회적으로 실시한 총동원 전도에! 대해 전도위원회 지도 장정일목사님을 모시고 그동안의 계획과 진행, 앞으로의 전망등에 관해서 알아보았다. 교회라면서 당연히 전도에 힘써야 될 줄 알면서도 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며 앞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는 뉴우스난을 보다 확대하여 보다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고 싶다.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회의 일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는 일이 일어 나기를

* 월간충현 조직*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조현명

편집위원 / 김하진 윤형철 조선근

김차생 손경수 오태용 김종주

이형수 김정태

월 간 충 현

6월호

제9권제6호

통권 제89호

발행인/김창인

편집인/조현명

주 간/윤형철

편집부장/이형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972년 4월30일 창간

1981년 6월21일 발행

100-서울중구충무로 5가 36

260-3407·3408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청년부에서는 교회내에 70세 이상의 어른을 모시고 경로회를 열어 노인들을 위로하는 하루를 보냈다〉



〈5월 10일 어린이주일을 맞아 주일학교 유년부에서는 연극과 오락등으로 학생들과 교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많은 사람을 젊은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단 12:3을 표어로 전도훈련에도 열심이었다〉



〈주일학교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전도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 어린 꼬마들이 함께 전도나가는 모습이다〉



〈5월을 충동원의 달로 정하고 교회는 전 교인이 전도하는 일에 힘썼다. 매주일 수십명의 새교우가 왔다. 안내하는 남여산업전도회·북한선교회 회원들〉



〈서만수·육호기선교사가 일시 귀국, 바쁜 일정 가운데 모든 일을 마치고 5월26일, 6월1일 각각 임지로 떠났다-설교하시는 서만수선교사〉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아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너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같이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